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과 식민교육:  
『불안한 조건들』 과 『루시』 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이 은 주



##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당가렘브가의 『불안한 조건들』과 킨케이드의 『루시』에서 식민교육과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에서 주인공이 받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그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듯, 기존의 빌둥스로만을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다시쓰기한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에서도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받게 되는 식민교육은 그것의 근간인 식민주의에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가 결합되면서 주인공에게 이중의 억압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식민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식민교육이 왜곡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회복하고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힘겨운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작품의 주인공들이 문제 삼고 있는 식민교육의 다양한 측면들과 이들이 식민교육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작품에서 재현되고 있는 식민교육과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것이다.

1장에서는 식민교육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논의할 것이다. 『불안한 조건들』의 탐부의 성장과정을 통해 식민교육과 계층문제, 그리고 여성 식민지인의 여성성 간에 어떠한 충돌들이 발생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식민지 본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니아샤의 성장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본국에서의 교육과 식민지 내 식민교육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논의할 것이다. 『루시』에서는 공식적인 식민교육뿐만 아니라 사제지간의 형태를 띠는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교육까지 등장하므로, 주인공 루시와 그녀의 고용주 머라이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식적인 식민교육과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교육이 어떤 점에서 일맥상통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2장에서는 세 여성인물들이 식민교육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식민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에 성공하겠다는 탐부의 열망이 여성 식민지인의 여성성을 왜곡하는 식민교육에 저항하는데 있어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주체적인 여성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니아샤는 신경성 거식증이라는 극단의 자학 행위까지 불사하며 식민교육에 저항하므로, 이 거식증을 분석함으로써 그녀의 저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과거 기억과 그녀에게 북미사회의 문물을 전수해주는 머라이어에 대한 묘사를 병치하는 루시의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루시가 식민교육에 저항하는데 있어 주체적인 여성성이 원동력이 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1장과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식민교육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탐부를 제외한 니아샤와 루시 각각이 보여주고 있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니아샤의 경우 영국과 로디지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그녀의 저항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왜곡하는 고향 서인도제도와 이주한 북미사회 모두를 거부하고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홀로 존재하겠다는 루시의 결심이 니아샤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모범적인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주요어:** 치치 당가렘브가, 자메이카 킨케이드, 『불안한 조건들』, 『루시』,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식민교육, 여성 탈식민주체

**학번:** 2011-20030

# 목 차

<b>서론: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과 식민교육</b>	<b>1</b>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장르적 특징들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내 식민교육의 양상들	
선행 연구 정리	
<b>1. 여성 탈식민주체와 식민교육</b>	<b>23</b>
계층문제와 식민교육	
식민지 본국에서의 교육과 소외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교육	
<b>2. 여성 탈식민주체의 여성성과 식민교육에의 저항</b>	<b>53</b>
여성으로서의 정숙함과 저항의 불능	
거식증과 식민교육에의 저항	
여성의 목소리와 식민교육에의 저항	
<b>3. 여성 탈식민주체의 성장</b>	<b>78</b>
서발턴과 성장의 좌절	
혼종성과 여성 탈식민주체의 성장	
<b>결론: 식민교육과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b>	<b>98</b>
<b>인용문헌</b>	<b>101</b>
<b>Abstract</b>	<b>108</b>



## 서론: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과 식민교육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postcolonial female Bildungsroma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짐바브웨 출신의 여성작가 당가렘브가(Tsitsi Dangarembga)의 『불안한 조건들』(*Nervous Conditions*)과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여성작가 킨케이드(Jamaica Kincaid)<sup>1)</sup>의 『루시』(*Lucy*)에서 재현된 세 주인공들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과 식민교육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가렘브가의 처녀작인 『불안한 조건들』은 짐바브웨 여성작가가 영어로 쓴 최초의 소설이다(Aegerter 233). 당가렘브가 본인은 자신의 처녀작이 모국인 짐바브웨에서 출간되길 원했으나 짐바브웨의 사회적 분위기가 극심한 수준으로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국에서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Okonkwo 53). 1988년에 출간된 『불안한 조건들』은 이듬해에 영연방 작가 상(Commonwealth Writers' Prize) 아프리카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Gorle 179). 카리브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 한 명인 킨케이드의 『루시』는 그녀의 대표작이자 『애니 존』(Annie John)에서 시작하여 『내 어머니의 자서전』(The Autobiography of My Mother)으로 끝나는 “자메이카 킨케이드의 연작 자서전”(Jamaica Kincaid's Serial Autobiography; Gilmore 96)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킨케이드의 『루시』는 이주자 출신의 여성작가가 카리브 문학에서 갖는 의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루시가 영국의 식민 지배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을 상징하는 인물인 어머니

---

1) 자메이카 킨케이드는 앤티가바부다 공화국(Antigua and Barbuda) 출신으로, 앤티가바부다는 안티구아(Antigua)와 바부다(Barbuda), 그리고 레돈다(Redonda) 이렇게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킨케이드의 유년시절과 작품의 활동반경이 안티과 섬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그녀의 출신지역은 안티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킨케이드가 카리브해 문학(Caribbean literature)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 한명임을 강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카리브해 출신으로 소개하는 바이다.



와 북미사회의 뿌리 깊은 유럽중심주의의 가치들을 상징하는 부유한 중산층 출신의 고용주인 머라이어(Mariah)로부터 벗어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로서 갖는 진정한 정수는 주인공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과 대비되는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고유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장르적 특징들

본 논문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특징들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특징들을 논의했던 대표적인 비평가들로는 앤드라지(Susan Z. Andrade), 볼러키(Stella Bolaki), 찬시(Myriam J. A. Chancy), 그리고 르쇠르(Geta LeSeur)가 있다. 앤드라지의 논의는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과 탈식민주의 성장소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볼러키는 앤드라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빌둥스로만의 특징들과는 대비되는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특징들을 논의함으로써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장르적 특징들에 대한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찬시는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의 정체성의 회복에 있어 몸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논의함으로써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구체적인 특징들의 한 예를 정의한다. 르쇠르의 경우는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에서 교육이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처럼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서도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논의함으로써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또 다른 특징을 정의한다.

앤드라지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유럽의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던 빌둥스로만의 세 가지 주요 특징들에 관한 모레띠(Franco Moretti)의 논의를 수용한다. 그녀는 모레띠의 빌둥스로만에 관한 논의의 틀을 들여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을 그 틀에 적용시킴

으로써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과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앤드라지는 모레띠가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의 특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한 데에 주목한다. 이 특징들 중 첫 번째는 “주관적 시간의 확장, 즉 “일상의 현실의 단조로운 리듬을 서사적으로 흥미롭게 만드는 것”(the expansion of subjective time, or “making narratively interesting the bland rhythm of everyday reality”; Andrade 118)이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 시간의 축소, 다시 말해 “개인의 운명과 19세기의 거대한 집단의 물결들을 분리시키면서 역사와 거리를 두는 것”(the shrinking of historical time, or “keeping history at the safe distance, separating the destiny of the individual from the great collective waves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rade 118)이다. 마지막으로 “계층이동에 대한 대화나 불안감”(conversation or anxiety about class movement; Andrade 118)이 있다.

앤드라지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의 세 가지 특징들이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먼저 앤드라지는 이 세 가지 특징들 모두가 반드시 그대로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가렘브가의 『불안한 조건들』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들 모두가 적용되지만, 파라(Nuruddin Farah)의 『지도들』(*Maps*)<sup>2)</sup>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특징들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지적한다(Andrade 118). 또한 앤드라지는 기존의 빌둥스로만의 세 가지 특징들이 변형되어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세 번

---

2) 누루딘 파라는 소말리아 출신의 소설가로, 소설 『지도들』은 「태양의 피 삼부작」(“Blood in The Sun”)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지도들』은 아스카(Askar)라는 이름의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장소설이다.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고아가 된 아스카는 미스라(Misra)라는 한 에티오피아 여성에 의해 길러지게 된다. 아스카는 성장하면서 미스라를 자신의 생모처럼 여기며 그녀와 깊은 유대감을 공유한다. 아스카는 이 유대감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사이에 오가덴 전쟁(Ogaden war)이 발발하면서 아스카는 미스라와 헤어지게 된다. 이후 성인으로 성장한 아스카는 정체성 및 민족성과 관련된 충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을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미스라의 아들로서의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제 특징인 “계층 이동에 대한 대화나 불안감”은 모레띠에게는 부르주아 계층의 귀족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지만 식민지 출신의 “아프리카인 주체”(the African subject; 118)들에게는 “서구화”(Westernization)나 “촌락에서 도시로의 이동”(movement from village to town) 등 공간의 이동으로 변형된다는 것이다(Andrade 118).

앤드라지는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이 모레띠가 정의한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의 특징들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이 유럽의 빌둥스로만에 포섭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 앤드라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발전과 빌둥스로만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빌둥스로만의 주인공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종종 명백하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함축적으로 국가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한다”(the growth and maturation of the individual, often explicitly and almost implicitly, tells of the growth and maturation of the nation; Andrade 115)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의 주인공은 유럽의 근대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 토대가 되었던 가치들에 근거하여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앤드라지는 “그렇다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의 연결이 분명하게 끊어질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What happens, then, when national development and individual growth are expressly de-linked?; Andrade 115)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국가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개인의 국가적 정체성(identity)과 인종적 정체성이 그가 속한 국가의 정체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와 관련하여 식민지 상황 안에서 식민지 본국의 영향 하에 성장해야 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을 떠올려볼 수 있다. 앤드라지의 질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의 논의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안드레이드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비평가는 볼러키이다. 이는 볼러키가 기존의 빌둥스로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로우(Lisa Lowe)의 용어를 빌려 “주체성의 이상화된 ‘국가적’ 형태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 즉 “다른 역사들과 경험들의 소리를 죽이는 통합의 ‘공식적인’ 서사”(the individual’s “identification with an idealised ‘national’ form of subjectivity,” an “official’ narrative of integration” that mutes other histories and experiences; Bolaki 12)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로우가 말하는 “주체성의 이상화된 ‘국가적’ 형태”란 간단히 말해 국가가 이상적이라 여기는 개인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주체성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란 앞서 논의했던 대로 기존의 빌둥스로만의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그의 주체성이 유럽의 근대국가가 표방하는 가치들에 충실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합의 ‘공식적인’ 서사”란 이러한 성장을 통해 주인공이 그가 속한 사회로 통합되는 결말을 작품이 맞이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 주인공의 성장과 결말이 “다른 역사들과 경험들의 소리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볼러키의 주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앞에서 했던 안드레이드의 질문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주장이다. 주인공의 민족적 정체성이 국가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빌둥스로만, 그리고 볼러키의 주장대로 이러한 주인공이 그가 가진 역사와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 침묵하면서 국가가 원하는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빌둥스로만 모두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경우를 떠올리게 한다.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에서 “다른 역사들과 경험들”을 가진 주인공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럽 중심주의의 가치들과 그의 정체성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탈식민주의적 맥락을 갖는 충돌은 기존의 빌둥스로만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겪는 충돌보다 더욱 비극적이다. 이는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고유의 역사와 경험들에 대해 침묵해야만 그가 현재 속한 사회, 즉 식민지 본국의 문화나 사회로 더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러키의 주장을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이 갖는 특징이 식민 지배하에 놓인

주인공의 역사와 경험들을 침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타당하다.

볼러키는 이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의 연결이 분명하게 끊어질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는 앤드라지의 질문, 다시 말해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자신만의 답을 내리고 있다.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이는 정체성의 지속적인 혼란은 설명하기 곤란한 지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볼러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볼러키는 먼저 킨케이드를 비롯한 여성 이민(immigrant)문학 작가들의 작품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들이 빌둥스로만이라는 장르를 들여온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살펴본 네 명의 작가들이 의식적으로 빌둥스로만을 수정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서구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듯이,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이라는 카테고리에 어울리는 텍스트들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이”(It is of little importance whether the four authors examined in this study consciously set out to revise the Bildungsroman; most of them have been educated in the West, and, as they have recognised, are more than familiar with texts that fit the category; Bolaki 11)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작가들이 빌둥스로만이라는 형식을 채택하였다는 점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작품들이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을 ‘수정’(revision)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다 더 주목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수정의 과정 안에서 형식을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텍스트들은 장르의 규범적인 관례들과 충돌하고, 받아들여진 장르의 전제들과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수정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유럽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형식을 정의하는 것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덜개” 아래 숨겨진

복합적인 양식들과 인물들을 드러낸다.

In this process of revision, the texts collide with normative conventions of the genre and grate against its naturalised assumptions, bending and stretching the form so that it reveals the multiple patterns and figures hidden under the generic “carpet” that has served to define a largely Eurocentric and patriarchal form. (Bolaki 11–12)

볼러키는 이와 같은 수정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안드레이드가 말한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의 연결이 분명하게 끊어질 때”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겪게 되는 상황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해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볼러키는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그녀의 정체성과 사회의 가치들 사이의 충돌들을 재현해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빌둥스로만이라는 장르는 택하되 장르의 “포괄적인 덮개”, 즉 주인공이 그가 속한 사회로 통합된다는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의 결말을 “왜곡하고 과장”함으로써 그 결말에 가려져왔던 복합적인 양식들과 인물들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볼러키는 서로 상이한 두 문화가 한데 조우하면서 각각의 문화의 독자적인 특징들을 공유하는 혼종적인 문화가 탄생한다는 바바(Homi K. Bhabha)의 “혼종성”(hybridity; Bhabha 7) 개념을 차용하여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을 “빌둥스로만의 혼종적 공간”(the hybrid space of the *Bildungsroman*; Bolaki 11)이라고 일컫는다. 그녀는 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논쟁적인 많은 긴장들 간의 협상을 위한 적절한 장소”(an appropriate site for the negotiation of a number of enduring and contentious tensions; Bolaki 11)라고, 다시 말해 탈식민주의 여성 빌둥스로만은 기존의 빌둥스로만과 탈식민주의 문학 각각의 특징들이 충돌하면서 이 둘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장르라고 다시 한 번 설명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유럽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기존의

빌둥스로만의 형식과 가치들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볼러키의 논의에서 핵심은 주인공이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을 통해 유럽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들 및 이 가치들과 주인공의 정체성 사이의 충돌들을 드러내고 동시에 이 가치들을 수정하고 또 협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다룰 두 작품인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의 세 주인공들의 성장과정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세 여성인물들 모두 식민지 출신으로 인종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볼러키의 논의의 핵심인 “수정”과 “협상”을 각 인물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작품을 통해 보다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볼러키는 주인공이 유럽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들을 수정 및 협상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주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외에도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젠더 문제를 지적한다. 그녀는 “젠더가 인종, 민족성, 그리고 성적 취향과 교차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의 성장이 상충적이고 다원적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적절하다”(the notion of individual development as conflicted and plural is even more pertinent given that gender intersects with race, ethnicity, and sexual orientation; Bolaki 14)고 주장한다. 볼러키의 이러한 주장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경우 정체성의 위기에 젠더 문제가 더해짐으로써 주인공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한층 더 “상충적이고 다원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여성 빌둥스로만의 주인공의 성장에 관한 논의에서 젠더 문제 또한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서 젠더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한 또 다른 비평가로 찬시가 있다. 찬시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Searching for Safe Space*)에서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흑인 여성들의 경우를 통해 젠더 문제에서도 특히 몸의 문제에 주목한다.

나는 망명 상태에 있는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그 공간에서는 균형들이 유지되는데, 사실 그 공간이라는 것은 가장 복잡한 형태를 띤 삶 또는 죽음에 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여성들은 그들이 망명해 온 땅, 다시 말해 보통 식민화하는 힘을 가진 땅과 그들의 고향, 즉 수많은 카리브해 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의하는 세상 속에서 여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극복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고향에서 시작되어 망명으로 이어지는 전투의 접점을 형성한다.

I want to go back to the space in which Afro-Caribbean women in exile reside, that space in which the balances struck are, in fact, a question of life or death in the most complex form. Because Afro-Caribbean women are not only forc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land of their exile, which is usually also that of a colonizing force, and their homeland, any number of Caribbean islands, they must also overcome the negation of their identities as women in a world that defines itself as male. Our bodies form the very nexus of the battle that begin at home and carries into exile. (Chancy 4)

몸에 대한 논의에 앞서 찬시는 먼저 망명에 대해 논의한다. 그녀는 “망명은 그것과 함께 고향과 자아 사이의 회복할 수 없는 간극을 수반한다”(exile brings with it an irreparable fissuring of self from homeland; Chancy 2)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 간극은 “누군가가 고향에 남는 것을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It is



what makes remaining in one's homeland unbearable and untenable; Chancy 2)이다. 따라서 이 간극 때문에 식민지인은 “스스로가 부과한 망명, 즉 이주”(self-imposed exile, that is, emigration; Chancy 2)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찬시는 주장한다. 이처럼 그녀는 망명뿐만 아니라 망명을 초래한 상황에도 주목한다.<sup>3)</sup>

3) 카리브해 지역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카리브 문학 내 망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해진다. 카리브해 지역은 1493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최초로 상륙하여 1838년 노예해방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 유럽의 식민지배와 함께 이루어졌던 노예무역의 중간기착지였다. 서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이 때 이루어진 노예무역으로 인해 카리브해 지역으로 강제 이송되었고 이들은 오늘날 카리브해 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예제도 폐지 후 농업의 하락세와 함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카리브해 지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구로 떠돌게 된다. 카리브해 지역의 역사는 식민주의와 함께 서아프리카 흑인들의 디아스포라로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서구세계로의 디아스포라가 지속되면서 ‘디아스포라’이라는 코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가(Aparajita Sagar)는 카리브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부재하고 있는 디아스포라”(a diaspora on absence; Sagar 171)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가의 주장은 자생적으로 문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족정체성 혹은 국가정체성 또한 형성할 수 있었던 제1세계의 국가들과 달리 카리브해 지역의 경우 역사의 시작이 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디아스포라였던 까닭에 민족 혹은 국가 정체성의 연결이 유실되었다는 의미로, 이러한 맥락은 곧 카리브해 문학의 특징으로 직결된다. 카리브해 출신의 작가들은 본토를 근거지로 삼아 창작활동을 하기보다는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카리브해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카리브 문학에서도 디아스포라를 제외하고 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사가는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일찍부터 카리브해 출신의 작가들로 하여금 서구의 인본주의에서 계승된 문화와 정체성의 배타적이고, 단일하며, 본질화된 개념들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했고, 타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섭 속에 존재하는 혼성적이고 경계선상에 있는 문화들과 정체성들에 관한 대안적인 해석들을 제공하게 했다”(The experience of diaspora has urged Caribbean...writers from early on to question closed, unitary, and essentialized notions of culture and identity inherited from Western humanism and to offer alternative accounts of cultures and identities that are “creolized” and “on the borders,” existing in constant contact and negotiation with others; Sagar 179)고 주장한다. 사가의 주장은 카리브해 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카리브해 출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브라운-로즈(J. A. Brown-Rose) 또한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카리브 문학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그녀는 카리브 출신의 작가는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통해 고향 카리브해의 국경과 그가 이주한 국가의 국경들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주체”(transnational subjects; Brown-Rose 5)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고향과 이주한 국가 간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초국가적 주체”인 “각 작가의 문학은 카리브해의 고향에 대한 비평과 새 국가에 대한 비평이라는 이중의 비평을 수행한다”(each writer's literature performs a dual critique of [the new] country, and of the Caribbean home, the old country; Brown-Rose 5)고 주장한다.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카리브해 출신의 여성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카리브해 지역의 정황상 독립 후 식민주의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는데, 이 민족 이데올로기가 남성 중심적이었던 까닭에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찬시의 주장대로 카리브해 여성작가들이 본국보다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타국,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작품 활동을 할 경우 그들이 목

그러면서 찬시는 카리브해 지역 출신 흑인 여성들을 고향에 있는 여성들과 망명의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구분하여 몸의 문제를 논의한다. 찬시에 따르면 고향에 남아있는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몸은 이미 학대를 받아서 “그들의 자주성”(their autonomy; Chancy 5)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층 간 불균형”(class imbalance; Chancy 5)에 주목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그렇다면 그 불균형들을 아무리 반복하거나 전도시킨 다한들 그들의 반응은 분명 그들 스스로를 제외한 채로 계층 불균형을 거론하는 것이”(their response, then, must be one that speaks to class imbalance without themselves, however, repeating or inverting those imbalances; Chancy 5)라고 하면서 이 여성들이 겪는 몸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반면에 망명, 즉 이주를 택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찬시는 주장하는데, 이는 이주를 선택한 여성들이 이주해간 곳의 문화, 즉 “그들의 것이 아니고, 이주자들의 문화에 반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위협받는다느 느낌을 덜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벌을 줄 것 같지 않은 문화”(a culture which is not theirs and which is not likely to punish for speaking out against the emigrants’ culture that it feels the less threatened by; Chancy 5) 속에서 계층문제보다는 몸의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시는 “이주를 한 카리브해 출신의 흑인 여성들에게 있어 몸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의 재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아내들, 어머니들, 백인 자녀들을 돌보는 늙은 흑인 유모들, 매력 없는 흑인 여성들, 그리고 나머지)를 재현하는 것이 된다”(For other Afro-Caribbean women, the body becomes a representation of who they ought to be (wives, mothers, mammys, sapphires, and the rest) rather than who they know themselves to be; Chancy 5)고 주장

---

소리를 내는 데 있어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Chancy 5). 이에 사가는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이 타국에서 출간될 경우 작품이 보다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이 여성작가들의 목소리는 본국에서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한다(Sagar 176).

한다. 이 주장은 여성 식민지인의 정체성과 몸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찬시에 따르면 여성 식민지인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몸을 통해 고스란히 재현된다. 이 논리는 특히 고향에 남아있는 여성 식민지인들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계층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제외된 채로” 진행된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계층문제 이전에 몸으로 재현된 왜곡된 여성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 주장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여성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고유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표방하는 유럽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들을 수정하고 협상함으로써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주인공이 자신의 몸으로 재현된 왜곡된 여성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고유의 정체성의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특징들은 서로 상이한 성장과정에 있는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의 세 주인공들에게도 적용된다. 『불안한 조건들』의 두 주인공들인 탐부(Tambu)와 니아샤(Nyash)는 식민 지배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라는 이중의 억압 아래 성장하면서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탐부와 니아샤는 이 위기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 본연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고자하는 힘겨운 노력을 펼친다. 고향 서인도제도를 떠나 북미사회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살아가는 루시(Lucy)는 과거의 기억과 고용주인 머라이어와 함께 보내는 현재의 일상을 끊임없이 병치하여 서술함으로써 고향에서 경험하였던 유럽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치들이 북미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에 루시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왜곡하는 이 가치들을 거세게 비판한다. 세 여성인물들의 성장과정은 여성 식민지인이 자신의 여성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해야 함을 피력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내 식민교육의 양상들

이 두 특징들 외에도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를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의 문제이다. 르쇠르는 『열 살은 어둠의 나이이다』 (*Ten is the Age of Darkness*)<sup>4)</sup>에서 앞서 논의했던 두 특징들과 더불어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교육의 문제를 꼽는다. 그녀는 기존의 “빌둥스로만은 거의 언제나 “교육의 소설”이고, 교육은 공식적일수도 비공식적일수도 있다”(The bildungsroman is almost always a “novel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 may be either formal or informal; LeSeur 22)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특징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르쇠르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의 빌둥스로만과 마찬가지로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에서도 교육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고 있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녀는 카리브해 출신의 작가들이 쓴 성장소설에서 재현되고 있는 교육을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으로 나눈 다음 각각에 속한 교육들을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그녀는 먼저 두 가지 “비공식적인 유형의 교육”(The informal type of education; LeSeur 22)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비공식적인 교육에 대하여 그녀는 래밍(George Lamming)의 소설 『내 피부의 성 안에서』 (*In the Castle of My Skin*)<sup>5)</sup>의 예를 들어 “서인도 제도의 아이가 받는 비공식적인 유형의 교육은 마을이나 “뜰”에서 이루어진다...아이들은 자신

4) 르쇠르는 서문에서 책의 제목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다(xi). 미국인 남편과 카리브해 지역 출신인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 체(Che)는 어느 날 폴 마셜(Paule Marshall)의 소설 『브라운 걸, 브라운 스톤즈』 (*Brown Girl, Brown Stone*)을 읽고서는, 자신과 나이도 똑같고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님을 두었다는 점도 같은 주인공 셀레나(Selina)를 가리키면서 “10살은 어둠의 나이이다”(ten is the age of darkness; LeSeur xi)라고 말했다고 한다.

5) 래밍은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한 바바도스(Barbados) 섬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내 피부의 성 안에서』는 지(G)라는 이름의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장소설이다. 작품은 아버지를 여읜 지가 학교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의 학교생활을 통해 래밍은 식민 지배의 상흔으로 얼룩진 카리브해 지역 및 피식민지인들이 식민지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재현 및 비판하고 있다.

들을 둘러싼 삶의 광경과 장면들에 참여하면서 배운다”(The informal type of education the West Indian child gets is from the village or “yard”...They learn by partaking in the sights and scenes of life around them; LeSeur 22)고 주장한다. 그러나 르쇠르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비공식적인 교육은 지리적 이동을 통한 교육이었다. 그녀는 “이동 즉 시골을 벗어나는 것은 서인도제도에서는 장점과 축복으로 여겨졌고, 이동 또한 교육으로 간주되었다”(Movement or going away from the provincial place is considered an advantage and a blessing in the West Indies and is viewed as education also; 23)면서 식민지 내 시골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나 제1세계의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를 비공식적인 유형의 교육의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한다. 르쇠르는 맥케이(Claude McKay)의 소설 『바나나 바텀』(*Banana Bottom*)<sup>6)</sup>에서 고향에서 영국으로의 이동이라는 비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주인공인 “프랜시스와 비타의 사회적 지위는 즉각적으로 향상되며, 그들의 계층과 지위는 갑자기 변한다”(Francis’s and Bita’s social status is immediately improved, and their class and status change abruptly; LeSeur 23)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변화와 동시에 “결과적으로,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은 품행과 처신에 있어 세련된 유럽식의 방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Subsequently, they are expected to behave differently by taking on more urbane and European modes of conduct and performance; LeSeur 24)고 르쇠르는 또한 주장한다.

르쇠르의 이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주인공에게 있어 식민지 내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나 제1세계의 대도시로의

---

6) 맥케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메이카인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미국의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를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바나나 바텀』은 비타 플랜트(Bita Plant)라는 자메이카인 소녀를 주인공을 한다. 비타는 백인 선교사들에게 입양되어 영국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22살의 나이에 고향 바나나 바텀으로 돌아온다. 작품은 고향으로 돌아온 비타가 자신의 영국화된 정체성과 새로이 인식하게 된 자메이카 흑인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겪는 충돌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7)</sup> 르쇠르는 카리브해 출신의 작가들이 쓴 소설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고향을 벗어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도시나 제1세계의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즉각적으로 개선”되고 “세련된 유럽식의” 삶의 방식들을 갖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물들의 이러한 믿음은 계층이동과 유럽식 삶의 방식들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 다시 말해 식민지인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은 곧 유럽식 삶의 방식들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주인공이 이 유럽식 삶의 방식들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이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이다. 식민지 출신의 개인은 식민지 본국의 사회가 추구하는 행동양식과 가치들을 배우고 내재화함으로써 “품행과 처신에 있어 세련된 유럽식의” 방식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곧 주인공이 식민지 본국이 원하는 개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은 앞에서 논의했던 유럽의 전통적인 빌둥스로만의 주요 특징인 주인공이 그가 속한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결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즉,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식민 지배 혹은 식민교육의 영향을 벗어나 탈식민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품행과 처신에 있어 세련된 유럽식의 방식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식민지 본국의 가치들을 내재화하는 통합을 거부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에서 재현되는 비공식적인 교육에 대한 르쇠르의 논의가 정의한 교육은 사실 식민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지나

7)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에서 공간의 이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불안한 조건들』에서 공간의 이동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인물은 탐부(Tambu)이다. 부유한 삼촌 바바무쿠루(Babamukuru)의 후원을 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탐부는 시골의 하층민 마을에서 학교와 공공기관들이 위치한 도시로 공간을 이동을 함과 동시에 토착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하층민 문화에서 영국화가 이루어진 부르주아 문화로의 문화적 이동 또한 경험하게 되며, 이 경험들은 그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루시』의 경우 『불안한 조건들』보다 공간의 이동이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는 주인공 루시가 경험하는 디아스포라 자체가 작품의 주요 주제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루시가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고향 서인도제도과 이주한 북미사회 모두를 거부하고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결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루시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은 공간의 이동과 함께 이루어진다.

지 않기 때문에 이 식민화 과정을 교육, 즉 주인공이 경험하게 되는 빌둥(Bildung)<sup>8)</sup>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다. 이에 르쇠르는 계층이동과 유럽식 삶의 방식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이야말로 식민지에서 학교와 같은 제도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즉 공식적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르쇠르는 “서인도제도 출신의 작가들이 쓴 작품들에서 공식적인 교육은 영국으로부터 받은 전통적이고 구조화된 공식이며, 초기 소설들에서 그것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교장들에 의해 실행된다”(Formal Education in these works is the traditional, structured formula sent over from England and in the early novels administered by cruel, merciless headmasters; LeSeur 24)고 주장한다. 그녀는 또한 식민지에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교장들”에 의해 실행되고 “영국으로부터 받은 전통적이고 구조화된 공식”을 갖고 있는 교육, 즉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외국식 교육은 서인도제도의 보통의 아이에게 있어 무관하고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교육은 많은 아이들에게 “외국으로” 나가는 것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를 향하는 이동을 준비시켰다”(That foreign education given to children seemed irrelevant and out of place to the average child in the islands, but did prepare many for going “abroad” and for upward social and economic mobility; LeSeur 25)고 주장한다. 르쇠르의 이러한

8) 코컬러스(Susan L. Cocalis)는 독일의 지성사에서 빌둥의 의미가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를 다룬 논문 「이미지에서 이상으로의 “빌둥”의 변천」 (“The Transformation of “Bildung” from an Image to an Ideal”)에서 빌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록 스폴딩과 에팅거는 샤프츠베리의 작품들의 번역을 제공하였지만, 빙켈만과 빌란트가 빌둥을 독일의 지적 생활에 소개한 것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두 남성 모두 빌둥을 칼로카가티아라는 고대 그리스의 이상, 즉 아름답게 형성되었고, 교양이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선한 상태와 동일시했다. 그러나 빙켈만은 빌둥을 고전주의 예술에서 불멸의 상태인 것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로 이해했던 반면 빌란트는 빌둥을 형성과정으로 해석했다”(Although Spalding and Oetinger provided the first translations of Shaftesbury’s works, Winckelmann and Wieland must be credited with introducing Bildung into German intellectual life. Both men equated Bildung with the Greek ideal of kalokagathia, i.e., with being beautifully formed, well-educated, and morally good. But whereas Winckelmann conceived of Bildung as an ideal state of being, such as that immortalized in classical art, Wieland interpreted it as a formative process; Cocalis 402). 빌둥에는 한 개인을 정신적으로 보다 더 고양된 수준의 개인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 관련된 함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코컬러스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장은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교육인 식민교육이 식민지의 학생들에게 제1세계로의 이주에 용이하도록 유럽식의 삶의 방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위를 향하는” 계층이동에 성공하여 유럽식의 삶의 방식들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식민화 과정 안에서 수행되는 교육, 즉 식민교육은 탈식민주의 성장소설과 연결하였을 경우 주인공이 식민지 본국의 사회로 통합되는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가 주인공이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능함으로써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주인공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 모두 어린 시절부터 식민교육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탐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데다가 가난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하층민 여성의 제한된 삶을 벗어나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했다. 그녀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당시 로디지아(Rhodesia)<sup>9)</sup>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대학교육까지 받게 되면서 로디지아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성장을 예고한다. 탐부의 성장은 식민지인들이 식민교육을 통해 학습 받은 식민주의적 가치들을 어떤 식으로 내재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탐부는 학력이 높아져감에 따라 식민교육에 부응하여 부유한 중산계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보이는 한 편 자신의 여성성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탐부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한계를 갖고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탐부의 니아샤를 향한 복합적인 감정과 시선을 고려한다면 그녀가 전적으로 한계를

9) 『불안한 조건들』의 공간적 배경인 로디지아(Rhodesia)는 실제로는 짐바브웨(Zimbabwe)의 전신인 남로디지아(Southern Rhodesia)로 잠비아(Zambia)의 전신인 북로디지아(Northern Rhodesia)와 구별해야 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로디지아는 1965년 11월 11일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1970년부터 로디지아 공화국(The Republic of Rhodesia)이 되었다. 로디지아 공화국은 대선준비와 함께 영국정부로부터 이와 관련된 행정상의 권리들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1979년에서 1980년까지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복귀하였다가 1980년 4월에 마침내 짐바브웨라는 이름의 독립국가가 되었다. 탐부와 니아샤가 거주하는 지역은 남로디지아의 움탈리(Umtali)라는 도시인데, 당시 남로디지아에서 솔즈베리(Salisbury)와 블라와요(Bulawayo)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가진 인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유학생이었던 부모님을 따라 어린 시절을 남아공과 영국에서 보냈던 니아샤는 서구의 교육에 일찍부터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탐부의 교육적 배경과는 다른 그것을 갖고 있다. 그녀는 귀국 후 사촌인 탐부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식민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니아샤는 탐부와 달리 식민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니아샤의 저항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영국화(Anglicization), 즉 식민지 본국인 영국에서 영국인들이 받는 교육과 식민지에서 식민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하는데, 결국 니아샤는 이 간극 사이에 갇혀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녀는 영국과 로디지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이 되어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의 극심한 위기를 겪으면서 종국에는 신경성 거식증(anorexia nervosa)이라는 자학증상까지 보인다. 니아샤의 이러한 육체적 자학은 일종의 무력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육체적 자학을 마비되어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을 표현하려는 양상으로 본다면 니아샤도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의 여성 주체로서 탐부와는 다른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니아샤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루시는 위의 두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식민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니아샤와 달리 자신의 몸을 자학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으로 재현된 왜곡된 여성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루시는 세 여성인물들 중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성 탈식민주체로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루시의 여성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유럽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들을 근간으로 하는 고향에서의 식민교육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되어 북미에서 살면서 고용주인 머라이어와 맺게 되는 사제지간을 비

관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까지 된다. 루시의 여성으로서의 탈식민적 주체성은 그녀가 고향인 서인도제도와 북미사회 모두를 거부한 채 여성 탈식민 주체로서 그녀만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 선행 연구 정리

이전부터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를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로 논의하려는 시도들은 있어 왔다. 그런데 『불안한 조건들』의 기존 연구들은 여성인물들의 연대와 니아샤의 거식증, 그리고 바바무쿠루로 대변되는 식민교육에 집중한 반면 탐부의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작품에서 여성인물들의 주체적인 삶을 얻고자 하는 저항은 자매애를 바탕으로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인물인 바바무쿠루로부터 일부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데, 이 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비평가로는 애거터(Lindsay Pentolf Aegerter)와 팻채이(Sheena Patchay)가 있다.

『불안한 조건들』에서 재현된 식민교육에 관한 논의는 바바무쿠루가 표방하는 가치들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우와케(Pauline Ada Uwakweh)를 위시한 많은 비평가들은 바바무쿠루 또한 식민교육의 희생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 또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바이나 본 논문의 목표를 고려하여 바바무쿠루가 표방하는 식민교육의 지배가치들에 주목하였다.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의 여성성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식민교육과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또한 집중하였다.

니아샤의 거식증에 관한 논의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무력감에서 기인한 자학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으로 양분된다. 전자의 시각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비평가는 앞서 언급한 팻채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후자의 시각에 동의한다. 쇼(Carolyn

Martin Shaw)와 오콘쿠(Christopher N. Okonkwo)와 같은 비평가들은 영국에서의 교육 덕택에 개인의 자주성에 눈을 뜬 니아샤가 식민교육으로부터 자신의 여성성을 억압받자 저항을 시도하지만 그녀가 가진 사회적 배경이 주변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정체성의 위기를 겪음을 지적하면서 니아샤의 거식증은 저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 또한 이 시각에 일면 동의하는 바이나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 세 여성인물들을 비교함으로써 저항의 성공 유무와 같은 이분법적 시각 대신 각 인물이 행하는 저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주력하였다.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로서 『루시』 읽기는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요스트(David Yost)를 비롯한 다수의 비평가들은 『루시』를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나 『빌레뜨』(*Villette*)의 다시쓰기(rewriting)로 보고 작품들 간의 상관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빌둥스로만의 장르적 특징과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그것을 골자로 하여 비교하기 보다는 제인이 로체스터(Rochester)와 사랑에 빠지듯 루시는 폴(Paul)과 연인관계가 된다는 식의 설정상의 비슷한 점들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 외 논의들 중 본 논문이 특히 주목한 것들은 루시의 탈식민적 분노와 루시와 어머니의 관계<sup>10)</sup>, 그리고 루시와 머라이어의 관계<sup>11)</sup>이다.

10)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던 대표적인 평자들로는 론스데일(Thorunn Lonsdale)과 부손(J. Brooks Bouson), 그리고 길모어(Leigh Gilmore) 등이 있다. 길모어는 『애니 존』(*Annie John*)과 『루시』, 그리고 『내 어머니의 자서전』(*The Autobiography of My Mother*)로 전반에 걸쳐 묘사되고 있는 모녀관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96). 길모어는 키키이드의 작품들에서 “언제나 어머니가 있을 것이다”(There will always be a mother; Gilmore 97)라고 주장한다. 길모어는 특히 『루시』에서 키키이드가 루시의 어머니를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 문화의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인도제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재현함으로써,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분석한다(104). 따라서 루시가 어머니를 거부하는 행위는 곧 서인도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억압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길모어는 지적한다(118). 길모어의 이러한 지적을 론스데일 또한 동의한다. 론스데일은 루시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는 “어머니-모국으로부터의 소외

루시의 탈식민적 분노의 대상에는 식민교육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루시의 탈식민적 분노는 『루시』에서 재현된 식민교육이 어떤 양상들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십분 활용될 수 있다. 루시의 식민교육에 대한 저항이 여성성의 회복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루시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고용주인 머라이어와의 삼각관계를 근거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루시가 두 여성의 삶을 비교하면서 여성성의 회복이 곧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으로 직결됨을 깨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장에서는 먼저 식민교육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계층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탐부의 성장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식민교육과 계층문제, 그리고 탐부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어린 시절 식민지 본국인 영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 니아샤는 고향 로디지아로 돌아온 후 이 교육을 바탕으로 여성 식민지인의 여성성을 왜곡하는 로디지아의 식민교육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한다. 루시의 경우 자신의 고용주인 머라이어로부터 북미사회의 다양한 문물들을 전수받으면서 일종의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머라이어가 루시에게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미사회의 시각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교육은 억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세 여성인물을 통해 식민교육의 양상들을 다각도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의 메타포”(a metaphor for the alienation...from the mother-country; 174)라는 유사한 주장을 한다. 부손 또한 루시의 가족관계는 “심리학적 드라마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드라마로서”(not so much as a psychological drama but instead as a political drama; 72) 읽혀져야 한다면서 두 비평가의 의견에 동의한다.

- 11) 비평가들은 루시와 머라이어의 자매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소와(Irline François)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소와는 루시와 머라이어의 자매애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선화 격차”(the Daffodil gap; François 79)라고 명명한다. 프랑소와는 머라이어의 “깊은 순진무구함, 세상을 보는 간단한 시각, 현실에 안주하는 백인민족중심주의”(profound naïvité, simplistic world view, complacent ethnocentricism; François 81)를 지적한다. 그리고 “루시의 담론을 지적이고 단일한 문화적 패러다임에 위치시키려는 머라이어의 고집”(Mariah’s insistence on placing Lucy’s discourse within an intellectual and homogenous cultural paradigm; François 81), 그러니까 제3세계 사람들 고유의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백인 지식인들이 만든 이론들에 끼워 맞춰 루시의 삶을 해석하려는 머라이어의 태도야말로 가장 비판받을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장에서는 세 여성인물들이 식민교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여성성의 위기가 어떻게 몸으로 재현되는지, 그리고 각 인물의 왜곡된 여성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탐부는 니아샤와 루시와 달리 여성성과 자신의 몸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는 인물이다. 작품 초반에는 탐부가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몸을 인지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식민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식민교육에 동화되어 간다. 니아샤의 경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몸에 눈을 뜨고 여성성을 마음껏 펼치기를 시도하지만 아버지인 바바무쿠루의 폭력적인 감시와 자신의 저항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을 경험한다. 니아샤의 무력감은 급기야 자학적인 신경성 거식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루시의 저항과 비교해볼 때 한계를 갖는다. 루시는 서인도제도의 어머니와 북미에서 만난 머라이어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억압을 발견하고 비판하는데 이에 더 나아가 두 여성인물들 모두가 이 억압에 수동적인 것 또한 비판한다. 그리고 루시는 이 두 여성인물들과 달리 자신만큼은 주체적인 삶을 도모하겠다고 결심한다.

3장에서는 1장과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여성인물들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러키는 탈식민주의 성장소설을 “**빌둥스로만의** 혼종적 공간”으로 규정하면서 이 두 성장소설들을 탈식민주의적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첸시는 여성 탈식민주체의 성장소설 쓰기에 있어 여성성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 모두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이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이 하나의 장르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 작품들과 주인공들의 의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보겠다.

## 1. 여성 탈식민주체와 식민교육

2장에서는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 세 여성인물들이 성장기에 경험하게 되는 민족적 정체성의 왜곡과 여성성의 억압의 원인인 식민교육의 본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식민교육은 식민지 본국의 식민 지배와 관련된 정책들에 따라 행해지는 식민지 내 공식적인 교육, 즉 식민지의 공교육으로 정의된다.<sup>12)</sup> 그러나 교육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여러 차이점들을 고려한다면, 식민교육의 정의를 식민지의 공교육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식민지 본국에서 받았던 교육과 주인공이 맺는 여러 관계들 중 사제지간의 형태를 띠는 관계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야 함이 분명해진다. 먼저 탐부는 고향인 로디지아에서 공교육만을 받은 까닭에 그녀의 경우 로디지아의 공교육만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니아샤는 탐부와 함께 로디지아에서 공교육을 받기에 앞서 부모님인 바바무쿠루와 마이구루(Maiguru)를 따라 건너간 식민지 본국인 영국에서 양질의 교육<sup>13)</sup>을 받은 인물이다. 로디지

---

12) 식민지 본국의 정부가 식민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 및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식민지인들의 정신까지도 통제해야 함을 진작부터 주지하고 있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켈리(Gail P. Kelly)와 알트바흐(Philip G. Altbach)가 식민교육은 “대영제국으로의 흡수로 유도되었고 식민지인들 고유의 사회와 문화 내 그들만의 독자적이고 그것들에 좌우되는 개발은 아니었다”(colonial education is directed at absorption into the metropole and not separate and dependent development of the colonized in their own society and culture; Kelly and Altbach 4)고 주장한데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 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식민지 내 공교육, 즉 식민교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식민지인들을 식민지 본국의 문화에 동화(assimilation)시킴으로써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데 있었다.

13) 니아샤는 “영국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a head-start programme for gifted children in England; NC 108)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들은 니아샤가 로디지아 공교육의 식민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측면들을 비판하는데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된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교수정과 김순양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미국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대처 프로그램 분석: Head Start를 중심으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의 아동에게 조기에 풍부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주고, 모든 아동이 자신의 환경적 요인과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 빈부 격차를 최소화하고 빈곤의 세대세습을 막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364).

아의 공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관들이 그녀가 영국에서 받은 교육의 가치관들과 충돌하면서 로디지아의 식민교육이 갖는 문제점들이 더욱 분명해진다. 니아샤의 이와 같은 사례는 식민교육을 식민지 본국에서의 교육과 연결시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루시는 탐부와 니아샤와 달리 서인도제도의 공교육의 과정을 마친 후 이주노동자가 되어 북미로 건너간 인물이다. 루시는 부유한 중산층 백인 여성이자 고용주인 머라이어라는 부유한 중산층 백인 여성으로부터 친어머니가 해주는 것과 같은 보살핌과 더불어 다양한 서구 문물들을 소개받는다. 머라이어가 루시에게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머라이어와 루시의 관계를 식민교육의 일환으로 볼 근거가 된다.

식민교육이 여성 식민지인을 어떻게 억압하고 그녀가 이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그리고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장은 탐부, 니아샤, 그리고 루시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탐부는 세 인물들 중 식민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성장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인들이 식민교육을 수용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탐부가 받았던 식민교육은 그녀의 삼촌 바바무쿠루의 그것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층민 출신이었던 바바무쿠루가 식민교육을 통해 중산계층에 진입하는데 성공했고 탐부 또한 것처럼 식민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식민교육과 계층문제 사이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니아샤는 부유한 식자층 부모를 둔 덕택에 하층민 출신인 탐부에 비해 계층 상승을 보장하는 식민교육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그러나 로디지아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영국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인해 니아샤는 남성 중심적인 로디지아의 식민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에 니아샤는 식민교육에 저항하는데, 그녀 주변의 인물들은 그녀의 저항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영국인다움”(the Englishness; NC 207)으로 비난할 뿐이다. 니아샤의 사례를 통해 식민지

본국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이 고향의 식민교육에 다시 유입되면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탐부의 사례가 식민교육의 “동화”(assimilation; *NC* 182)과정 전반에 관한 것이라면, 니아샤의 사례는 이에 더 나아가 이 동화과정 내에서 여성 식민지인은 남성 식민지인과 달리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문화라는 이중의 억압 아래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루시는 머라이어로부터 북미사회의 다양한 문물들을 소개받는다. 루시는 머라이어의 북미사회의 문물들을 소개해줄 때마다 과거 고향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그녀가 소개해주는 문물들과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삶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다시 말해 북미사회의 가치관들이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삶이 갖는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고는 이에 분노한다. 게다가 루시는 머라이어의 소개해주고 있는 북미사회의 문물들에 내포된 가치관들이 서인도제도의 식민교육이 추구하는 그것들과 동일하기까지 함을 발견한다. 이처럼 머라이어의 교육은 과거 루시가 서인도제도에서 받았던 식민교육과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는 머라이어의 교육을 일종의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식민교육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계층문제와 식민교육

탐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이고, 가난하며, 못 배우고 흑인인”(my mother, who suffered from being female and poor and uneducated and black; *NC* 91) 어머니 마이니니(Mainini) 곁에서 “한 편으로는 흑인이 갖는 가난과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들이 갖는 중압감”(the poverty of blackness on one side and the weight of womanhood on the other; *NC* 16)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랐다. 따라서 탐부는 성장하면서 “나의 어머니와는 다른 종류의 여성”(a different kind of woman from my mother; *NC* 16)이 되겠다는 강한 열망과 함께 “가난하지도 않고 여



성들이 갖는 중압감의 압박을 받지 않는 마이구루”(Maiguru, who was not poor and had not been crushed by the weight of womanhood; *NC* 16)를 자신의 모범으로 삼는다. 탐부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면 숙모인 마이구루처럼 교육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어야 함을 깨닫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간다. 그 결과 그녀는 당시 로디지아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인으로 구성된 “성심여자대학교”(Young Ladies College of the Sacred Heart; *NC* 203)에 진학하여 고등교육까지 받게 된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는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로디지아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탐부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오빠 응하모(Nhamo)를 대신해 “이 의무, 즉 배고픔과 궁핍함으로부터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맡는 것”(this duty, to take this job of raising the family from hunger and need; *NC* 56)을 조건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탐부는 식민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을 도모함으로써 영국의 식민 지배의 경제적 착취로 인해 로디지아인들 대다수가 겪고 있는 가난과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의 부조리한 억압 들 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작품 초반부터 탐부는 여성의 주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계층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바바무쿠루의 집에서 살게 된 첫날 밤 탐부는 “그 거실의 고상함”(the elegance of that living room; *NC* 68)에 마음이 사로잡혀 “나의 교육<sup>14)</sup>은 벌써 시작되었고, 나는 실용적인 눈으로 마이구

14) 「공간의 문제들: 치치 당가렘브가의 『불안한 조건들』의 형식과 서사」 (“Space Matters: Form and Narrative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펼쳤던 오킨쿠(Christopher N. Okonkwo)는 바바무쿠루의 집을 묘사한 장면들에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나 성별간의 위계질서와 같은 권력 문제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56). 그는 탐부가 바바무쿠루의 집에서 살게 된 첫 날 “바바무쿠루는 신이었고, 따라서 나는 천국에 도착했다”(Babamukuru was God, therefore I had arrived in Heaven; *NC* 70)고 서술한 것에 주목한다. 오킨쿠는 탐부의 서술을 통해 식민교육을 받고 청교도계 학교의 교장이 되어 계층 상승에 성공한 남성 식민지인인 바바무쿠루의 집이 “침범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남성의/신성한 권력의 영역”(a territory of inviolable and unnegotiable male/God-like power; Okonkwo 70)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바바무쿠루가 여성은 순종적이고 정숙해야 한다는 그의 가정교육에 저항하는 딸인 니아샤에게 “이 집에서 우리는 두 명의 남자를 가질 수 없다”(We cannot have two men in this house; *NC* 117)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은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공간이다. 그리고 탐부가 모범이

루의 거실을 살펴보았다; 나도 언젠가는 이 집 같은 집을 가질 것이다; 나는 집을 어떻게 꾸밀지 알 필요가 있었다”(My education had already begun, and it was with a pragmatic eye that I surveyed Maiguru’s sitting-room; I would own a home like this one day; I would need to know how to furnish it; *NC* 68)고 서술한다.

탐부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기에 앞서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여성 식민지인이 여성의 주체성보다도 계층문제에 더 골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이 이유들은 탐부의 친할머니 음부야(Mbuya)의 “역사수업들”(history lessons; *NC* 17)에서 드러난다.

마법사들은 배신에 능통했고, 남쪽에서 흑마법이 나와 사람들을 땅에서 몰아냈다...그러나 마법사들은 욕심 많고 탐욕스러웠다; 사람들을 위한 땅은 더더욱 없었다...셋째 아들이었던 나의 친할 아버지는 주택농지의 척박함에 진력이 나 부와 사치를 미끼로 한 마법사들의 속삭임에 걸려들어 가족들을 데리고 그들의 마법사의 농장들 중 하나로 갔다. 유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대가로 노예제로 유입되었음을 깨달았을 뿐...그러다가 친할머니는 마법사들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성스럽기 때문에 마법사는 아닌 존재들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종교계 학교를 세웠다는 것을 들었다. 친할머니는 당시 아홉 살이었던 나의 삼촌 바바무쿠루와 함께 걸어서 그 곳에 갔다...선교사들은 삼촌에게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게 했다. 삼촌은 밤에 선교사들의 마법 속에서 교육받았다. 현명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던 친할머니

---

라 여기는 마이구루는 이 공간에 처음 들어서는 탐부를 “자리에 편히 앉으”(sit comfortably in the seat; *NC* 72)라는 말과 함께 반갑게 맞이한다. 바바무쿠루 만큼이나 식민교육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바바무쿠루에게 “갓난아기 같은 말투”(baby-talk; *NC* 178)를 쓰며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마이니니가 이러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 공간 내 거실에 있는 모습은 비록 식민교육이 여성 식민지인의 계층 상승을 실현시켜 준다 할지라도 그녀의 계층 상승이 반드시 여성의 주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공간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의 교육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탐부의 서술 또한 그녀가 받게 된 식민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는 선교사들에게 삼촌이 그들의 세계 내에서 그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 . .

Wizards well versed in treachery and black magic came from the south and forced the people from the land...But the wizards were avaricious and grasping; there was less and less land for the people...But the third-born son, my grandfather, lured by the wizard's whispers of riches and luxury and driven by the harshness of the homestead, took himself and his family to one of their wizard's farms. Yuwi! Only to find that they had been enticed into slavery...And then she heard that beings similar in appearance to the wizards but not of them, for these were holy, had set up a mission not too far from the homestead. She walked, with my uncle, with Babamukuru, who was nine years old...They set him to work in the farm by day. By night he was educated in their wizardry. For my grandmother, being sagacious and having foresight, had begged them to prepare him for life in their world. . . . (NC 18)

“욕심 많고 탐욕스러웠”던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의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식민지인들을 “노예제로 유입”시킴으로써 극한의 경제적 착취를 행했다. 그 결과 “흑인이라는 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짐이”(being black was a burden because it made you poor; NC 16)라는, 즉 흑인이라는 인종 자체가 가난의 동의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는 식민 지배의 경제적 착취로 인해 식민지인의 인종적 정체성이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식민주의를 논의하였던 파농(Frantz Fanon)은 식민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마르티니크<sup>15)</sup>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마르티니크에서는 확립된 인종상의 지위를 발견하기란 극히 드물다. 인종문제는 경제적 차별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있으며, 특정 사회계층 내에서 인종문제는 무엇보다도 계층과 관련된 일화들을 야기한다. 관계들은 표피상의 발음방법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 피부가 함유하고 있을 멜라닌의 양이 다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의사인지, 방문판매원인지, 노동자인지 알아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흑인 노동자는 중산층 흑인에 대항하여 몰라토 노동자의 편에 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종의 문제가 그저 상부구조<sup>16)</sup>이자 덮개이며, 경제적 현실을 숨기는 모호한 이념적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In Martinique it is rare to find hardened racial positions. The racial problem is covered over by economic discrimination and, in a given social class, it is above all productive of anecdotes. Relations are not modified by epidermal accentuations. Despite the greater or lesser amount of melanin that the skin may contain, there is a tacit agreement enabling all and sundry to recognize one another as doctors, tradesmen, workers. A Negro worker will be on the side of the mulatto worker against the middle-class Negro. Here we have proof that questions of race are but a superstructure, a mantle, an obscure

---

15) 나폴레옹 1세(Napoléon Bonaparte I)의 첫 번째 왕비였던 조세핀 보나파르트(Joséphine Bonaparte)가 태어난 고향으로도 유명한 마르티니크는 카리브 해 동부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영토이다. 1635년에 프랑스가 처음 진출한 이래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1946년에 프랑스의 지방 행정 구역으로 통합되었다. 전체주민 대다수가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의 혼혈인 몰라토(mulato)이다.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며, 공식 화폐는 유로를 사용한다. 주도는 포르드프랑스(Port de France)이다.

16) 마르크스주의에서 상부구조는 토대인 경제 구조에 따라 형성되는 정치나 법률, 문화 등을 의미한다.

ideological emanation concealing an economic reality. (Fanon 18)

위의 인용문에서 “인종문제들이 상부구조이자 덮개이며, 경제적 현실을 숨기는 모호한 이념적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목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파농은 “피부가 함유하고 있을 멜라닌의 양이 다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즉 인종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흑인 노동자가 같은 인종임에도 계층이 다른 중산층 흑인의 편에 서는 대신 다른 인종임에도 같은 계층에 속하는 몰라토 노동자의 편에 서는 상황을 근거로 들어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인종차별보다도 오히려 계층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식민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 계층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파농의 이러한 논의는 탐부와 같은 여성 식민지인이 여성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계층문제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탐부가 식민교육을 받게 되는 “학교”(the mission; *NC 2*)<sup>17)</sup>의 교장이기도 한 바바무쿠루가 어린 시절 받았던 식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음부야의 “역사수업들”은 식민지인들의 계층문제에 있어서 식민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음부야를 비롯해 “현명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던” 몇몇 식민지인들은 “오늘 학교에 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의 가족은 내일 번창하게 될 것”(These children who can go to school today are the ones whose families will prosper tomorrow; *NC 45*)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음부야는 장남이었던 바바무쿠루를 백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로 보낸다. 선교사들은 근면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바바무쿠루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는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그리고 바바무쿠루는 귀국하여 그가 한 때 다녔던 종교계 학교의 교장이 되어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가문 내 그의 가족은 사람들 앞

---

17) 바바무쿠루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는 정확히는 “청교도계 학교”(a Protestant mission; *NC 179*)로, 청교도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청교도계 학교”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학교라고 표기한다.

에서 고개를 뺏뺏이 들고 다닐 수 있었다”(His branch of the family was able to hold its head high in whatever company; *NC* 44).

위의 인용문에서 탐부는 식민주의자들을 상징하는 “마법사들은 배신에 능통했고” 한때 그녀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바바무쿠루는 “경작자를 유지시켜 줄 경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경작될 수 있는, 착한 소년”(a good boy, cultivatable, in the way that land is, to yield harvests that sustain the cultivator; *NC* 19)에 지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서술에서 드러나는 탐부의 비판적인 어조는 음부야의 “역사수업들”이 당시 “내 귀에는 진실로 낭만적인 이야기였다”(It was truly a romantic story to my ears; *NC* 19)고 생각했던 어린 탐부가 아니라 식민교육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성인 탐부의 시점(point of view)에서 서술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당시 어린 탐부는 식민교육의 “동화”(assimilation; *NC* 182)과정을 알지 못했으며, 식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층이동(class mobility)에 성공함으로써 가난을 탈피하려는 욕망이 강했다. 나이르(Supriya Nair)는 “탐부의 식민교육에 대한 욕망을 중산층의 지위와 식민지의 자본과 상관관계가 있는 욕망으로”(Tambu’s desire for colonial education as a correlative desire for bourgeois status and colonial capital; Nair 7) 해석한다. 우와케(Pauline Ada Uwakweh) 또한 “바바무쿠루의 교육적 지위는 그가 최고 위치의 가장으로 부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음에 주목하라”(Note that Babamukuru’s educational status enables him to emerge as the ultimate patriarch; Uwakweh 79)고 주장한다. 나이르와 우와케의 주장은 식민지인이 계층문제를 통해 가난이라는 식민지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성향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탐부는 음부야의 “역사수업들”의 실례인 바바무쿠루를 보며,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식민 지배의 경제적 착취로 인해 식민지에 만연한 가난과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라는 이중의 억압 아래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

가는 어머니 마이니니를 보며 식민교육을 통해 “또 다른 자아”(another self; NC 58)를 찾기를 희망한다. 탐부는 “가난하지 않고 여성의 삶이 갖는 중압감에 치인 적이 없는 마이구루(Maiguru, who was not poor and had not been crushed by the weight of womanhood; NC 16)를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또 다른 자아”의 모범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 탐부가 원하는 “또 다른 자아”란 식민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에 성공하여 가난에서 비롯된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유한 중상계층의 여성이다. 여기서 탐부는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로 인해 ‘여성’ 식민지인들이 겪는 억압들을 오로지 계층문제로만 환원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이 오류는 탐부가 남성 중심의 로디지아에서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마이구루가 자신이 번 돈을 자신만의 목적에 따라 쓸 수 없었고 결혼 때문에 자신이 하길 원했던 것들을 할 수 없었”(she could not use the money she earned for her own purposes and had been prevented by marriage from doing the things she wanted to do; NC 103)던 것에 유감스러워하면서도 “그녀는 나의 바바무쿠루와 결혼했고, 이는 그녀의 상황을 좋은 것으로 정의했다”(she had been married by my Babamukuru, which defined her situation good; NC 103)고 결론내리는 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마이구루는 어린 시절 식민교육을 받고 바바무쿠루와 결혼한 후에는 그와 함께 영국에서 철학석사”(a Master of Philosophy; NC 99) 학위를 취득한, 로디지아에서는 보기 드문 중산층의 여성 지식인이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마이구루를 남성 중심의 문화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인물로 평가한다. 우와케는 “마이구루의 교육은 그녀에게 독립을 향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초월할 시도도 하지 않으며 그녀의 딸이 개인성을 탐구하려는 것에 반대하지도 않는다”(Maiguru’s education does not give her the leverage to independence...She neither attempts to transcend her status nor stands up to her daughter’s quest for individuality; Uwakweh 81)고 주장한다. 토마스

(Sue Thomas) 또한 마이구루의 “복종과 자주성의 결여”(submissiveness and want of autonomy; Thomas 29)는 식민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여성 탈식민주체의 주체적인 삶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29).

그렇다면 식민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와 관련하여 비평가들의 의견은 양분된다. 앞서 인용하였던 우와케나 토마스와 같은 비평가들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있어 식민교육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이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매드(Hena Ahmad)는 식민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매드는 마이구루가 자신의 월급을 마음대로 일가친척들을 돕는데 전부 사용하는 바바무쿠루의 부당한 처사에 반기를 들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 바바무쿠루가 예전과 달리 그녀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게 된 것에 주목한다. 아매드는 마이구루가 경제적 능력을 지닌 여성이었다는 점이 바바무쿠루로 하여금 그녀의 저항을 과소평가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아매드는 “소설의 여러 교훈들 중 하나가 경제적 능력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의 여성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the novel’s one message, among others, clearl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women as a first step toward gaining economic viability; Ahmad 79)고 주장한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 남성 중심의 문화를 향한 여성 식민지인의 저항의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식민지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식민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은 탐부와 같은 하층민 출신의 여성 식민지인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의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식민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바무쿠루와 탐부의 관계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훗날 성인이 된 탐부는 바바무쿠루의 집에서 살게 된 첫 날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나는 똑똑한 소녀이지만 또한



착한 여자로 발전해야만 한다면, 자신의 말에 있는 그 어떤 모순도 보지 못한 채 두 자질들 모두를 강조하면서 그는 말했다”(I was an intelligent girl but I had also to develop into a good woman, he said, stressing both qualities equally and not seeing any contradiction in this; *NC 89*).

바바무쿠루가 대리인(agent)으로 있는 식민교육은 “똑똑한 소녀”와 “착한 여자”를 동일선상에 놓는다. 로디지아의 식민교육이 정의하는 “똑똑한 소녀”란 가족 내 아들이 부재하는 상황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족의 “물질적 해방”(material emancipation; *NC 89*)을 위한 “품위 있는 직업”(a decent profession; *NC 4*)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받게 된 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민교육은 여성 식민지인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인지하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그녀의 그러한 행위가 어려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커서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인 “착한 여성”의 태도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식민교육은 여성 식민지인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난점을 제공한다.

작품이 진행될수록 탐부는 남성 중심의 식민교육에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sup>18)</sup> 탐부는 “여성다움을 남성다움에 반대되고 열등한 것으로”(Femaleness as opposed and inferior to maleness; *NC 118*) 왜곡하

18) 마이구루 또한 결과적으로는 식민교육에 동화과정을 벗어나는데 실패한 여성 식민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바바무쿠루를 향한 한시적인 저항을 통해 그로부터 그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은 배운 여성들에게 편견이 있죠. 편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정숙하지 않다고 말해요”(People were prejudiced against educated women. Prejudiced. That’s why they said we weren’t decent; *NC 184*)라고 말하면서 로디지아에 만연한 여성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하고 탐부의 대 학진학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마이구루는 딸인 니야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만은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 그녀는 자신 또한 비판했던 로디지아의 여성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에 니야사가 격렬히 저항하다 급기야 거식증에 걸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딸의 저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 마이구루가 탐부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여성상이라는 점과 더불어 탐부 또한 『불안한 조건들』 전반에 걸쳐 여성의 주체성과 관련된 충돌들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탐부 또한 미래에 마이구루와 같은 여성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마이구루의 사례는 탐부와 같은 여성 식민지인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피력한다.

는 바바무쿠루에게 육체적 충돌까지도 불사하면서 저항하는 니아샤를 보며 그녀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뒤얽힌 생각들이 매듭으로 묶여진 채로 내버려두는 것은 쉬웠다”(it was easy for me to leave tangled thoughts knotted; *NC* 118)면서 여성의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탐부는 “나는 바바무쿠루의 그림자 아래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니아샤가 왜 이것을 위협적이라고 여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I felt secure at the mission under Babamukuru’s shadow and I don’t understand why Nyasha found it so threatening; *NC* 118)고도 말한다. 탐부의 이러한 태도는 계층 상승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식민교육을 수용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에 순종하는 여성 식민지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식민지 본국에서의 교육과 소외

애거터(Linsay Pentolfe Aegerter)의 주장대로 탐부가 식민교육을 통해 “시골에 사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식민화의 유산인 그녀의 아버지의 성차별주의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determined to escape the sexism of her father and the poverty that is colonization’s lingering legacy to rural Africans; Aegerter 234)던 인물이라면 니아샤는 그런 탐부에게 식민교육의 “동화”(assimilation; *NC* 182)에 내포된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인물이다.<sup>19)</sup> 니아샤는

19) 탐부는 “내가 여기서 말했던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이자, 내가 사랑했던 네 명의 여성들, 그리고 우리의 남성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것들 전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the story I have told here, is my own story, the story of four women whom I loved, and our men, this story is how it all began; *NC* 208)라는 문장을 끝으로 『불안한 조건들』을 마친다. 이에 많은 비평가들이 『불안한 조건들』 내 여성 공동체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앤드라지는 탐부의 로디지아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성장은 어디까지나 “여성 공동체”(the community of women; Andrade 146) 덕택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146). 앤드라지는 이 공동체 내에서도 특히 “탐부의 서술상의 대응관계에 있는 인물”(her narrative counterpart; Andrade 146)인 니아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사촌이 사교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비판적인 명민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기감정에 솔직한 소녀인 니아샤 그녀 자체는 탐부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탐부가 청교도계 학교의 한정

『불안한 조건들』의 여성인물들 중에서도 식민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이다.

작품은 애거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니아샤의 탈식민주의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들”(Nyasha’s postcolonial and feminist perspectives; Aegerter 234)이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을 따라 건너갔던 식민지 본국인 영국에서 받은 교육 덕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니드 블라이튼<sup>20)</sup>부터 브론테 자매들까지...니아샤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장서들”(Nyasha’s various and extensive library...from Enid Blyton to the Brontë sisters; NC 94)에 대한 묘사와 “니아샤는 동쪽에 있는 아랍인들과 서쪽에 있는 영국인들에 대해서 읽었다; 나치와 일본인, 그리고 히로시마에 대해서 읽었다”(She read about Arabs on the east coast and the British on the west; about Nazis and Japanese and Hiroshima; NC 94)는 서술은 그녀가 영국에서 받았던 양질의 교육을 통해 로디지아 또래 아동들이 이해하기 힘든 다양한 사상들과 지식을 배울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sup>21)</sup> 이 사상들은 여성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로디지아의 식민교육과 아버지 바바무쿠루에 대한 그녀의 비판적인 태도의 토대가 된다.

니아샤는 바바무쿠루가 여성 식민지인의 여성성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것에 전면적으로 맞선다. 니아샤는 오빠 키도(Chido), 그리고 탐부와

---

된 도서관을 능가하는 장서들을 경험하게 해주며 그녀의 사촌이 가부장제와 식민주의를 점차적으로 인지하게끔 자주 자극한다”(Nyasha, the unmade girl, is herself instrumental to Tambu’s formation, helping to shape her cousin socially and responsible for her critical acuity. She exposes Tambu to a library beyond the limited one of the Mission School and frequently prods her cousin’s increasing awareness of patriarchy and colonialism; Andrade 146).

20) 에니드 블라이튼은 영국 출신의 아동문학가로, 그녀의 작품들은 193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무려 구십 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육백만 부 이상 팔렸다. 그녀의 여러 작품들 중 특히 유명한 작품들로는 『페이버스 파이브』(*Famous Five*)과 『시크릿 세븐』(*The Secret Seven*) 등이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제들로 인해 1950년대 이후 그녀의 작품들은 문학 비평가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된다.

21) 1970년대 로디지아에서 아동의 법정입학연령은 일곱 살이었다. 탐부는 로디지아 전반에 만연한 가난으로 인한 “학비의 문제”(the question of fees; NC 13)로 “우리들이 여덟 살이나 심지어 아홉 살이 될 때까지 우리들 중 많은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시작하지 못했다”(many of us did not begin school until we were eight or even nine years old; NC 13)을 정도로 당시 로디지아의 교육환경은 열악했다고 서술한다. 당시 이를 고려하면 니아샤가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양질의 교육을 받았음이 명백해진다.

함께 한 학기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베이트 홀에서 열리는 ‘광란’의 크리스마스 파티”(a ‘raving’ Christmas party at the Beit Hall; *NC* 111)에 참석한다. 탐부와 키도는 파티가 끝난 후 곧바로 귀가하였지만 니아샤는 백인 선교사의 아들인 앤디(Andy)에게 새 춤을 배우느라 이들보다 조금 늦게 귀가한다. 그녀의 늦은 귀가에 분노한 바바무쿠루는 교장으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빌미로 니아샤를 “창녀처럼 구는 딸”(a daughter who behaves like a whore; *NC* 116)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니아샤가 그의 비난이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넌 반드시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해’라고 바바무쿠루는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를 다시 때렸다”(‘You must learn to be obedient,’ Babamukuru told Nyasha and struck her again; *NC* 117). 쇼(Carolyn Martin Shaw)는 “니아샤의 아버지 바바무쿠루가 니아샤의 섹슈얼리티를 감시하는 것은 많은 부분 그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독교에서 유래하”(Her father’s, Babamukuru’s, surveillance of Nyasha’s sexuality derives in large part from the Christianity that he learned at the mission; 10)는데, “여성의 규제나 억제에 대한 쇼나의 전통적인 이상이 이 청교도주의와 맞물린다”(The traditional Shona ideal of female restraint or containment meshes well with this puritanism; Shaw 11)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쇼의 주장은 여성 억압적인 기독교의 교리까지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식민교육이야말로 식민지 본국과 식민지 구별 없이 여성성의 억압과 왜곡이 도처에 만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니아샤는 바바무쿠루에게 육체적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해를 가하면서”(doing what damage she could; *NC* 117) 맞선다. 니아샤가 바바무쿠루와 벌이는 몸싸움은 작품 말미에 이르러 소외로 인한 무력감을 견디다 못해 “신경성 거식증”(anorexia nervosa; Gorle 181)이라는 자학을 통해 최후의 육체적 저항을 감행하기 전, 아직은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the hope of finding fundamental solutions; *NC* 118)이 있다고 믿었던 그녀가 시도했던 최초의 적극적인 저항이다.

니아샤에게 있어 식민지 본국에서의 교육, 즉 비평가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영국화(Anglicization)가 식민교육을 비판적으로 볼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영국화가 니아샤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어느 정도 공헌한 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영국화야말로 니아샤가 주변의 로디지아인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니아샤는 “내가 스스로를 남자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질 않는다”(I do not feel that I am inferior to men; *NC* 200)는 이유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로부터 “속물”(a snob; *NC* 200)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란하다는”(loose; *NC* 95) 오명까지 뒤집어쓴다. 게다가 “학교 여학생들은 ‘니아샤가 스스로를 백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빈정대곤 했는데, 이것은 저주만큼이나 안 좋은 것이었다”(‘She thinks she is white,’ they used to sneer, and that was as bad as a curse; *NC* 95).

이처럼 남성 중심의 식민교육에 저항하는 니아샤는 주변 인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간다. 다시 말해, 탐부와 그녀의 일가친척들,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니아샤의 저항에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배척한다. 비평가들은 니아샤의 소외의 가장 큰 원인이 그녀에게 로디지아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이 부재에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골(Gilian Gorle)은 니아샤의 민족적 정체성의 부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골은 니아샤가 어린 나이에 영국에서 오년을 보내는 동안 로디지아의 언어인 “쇼나”(Shona; *NC* 42)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까닭에 귀국 후 그녀와 그녀의 주변사람들 사이에 “언어적 단절”(linguistic deracination; Gorle 186)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단절과 니아샤의 민족적 정체성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그녀는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됨과 더불어 그녀의 소외는 더욱 가속화된다고 주장한다(186).

그러나 골과 같은 비평가들의 주장은 니아샤가 소외를 경험하는 이유를 그녀의 영국화와 그것으로 인한 민족적 정체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 탐부의 어머니 마이니

나나 이모인 루시아(Lucia)와 같은 여성인물들이 왜 니아샤의 저항에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작품 내 여성인물들과 니아샤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계층 간 격차와 학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로디지아의 남성 중심의 문화에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바바무쿠루와 그의 교육이 아들 응하모를 죽였다고 믿는 마이니니는 성심여대에 진학하게 된 탐부가 것처럼 죽게 될까봐 단식으로 탐부의 진학을 반대한다.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탐부가 다니는 학교에서 낮에는 요리사로 일하고 밤에는 수업을 듣는 루시아는 『불안한 조건들』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 여성인물들은 니아샤의 저항을 적대시한다.

마이니니는 탐부에게 니아샤의 거식증을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그게 영국다움인 거지’, 어머니가 말했다. ‘만약 그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 모두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들을 보려무나. 키도 저 남자애는 자신나라 말을 거의 한 마디도 할 줄 몰라, 그리고, 너도 알게 될 거다, 그의 아이들은 더 심각할 것을. 갠 그 백인 애, 선교사 딸이랑 어울리잖니? 그의 아이들은 우리 이름을 먹칠할거야. 두고 보라지, 그리고 그 애 스스로는 자신이 꽤나게 보일 거라고 보지만, 개가 어떤 대가를 치를 진 아무도 모르지. 어머니는 니아샤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애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지어 말도 꺼내지 않는다.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고. 개네 둘 다, 그건 영국다움이야. 그게 개네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따름이야.’

‘It’s the Englishness,’ she said. It’ll kill them all if they aren’t careful,’ and she snorted. ‘Look at them. That boy Chido can hardly speak a word of his own mother’s tongue

and, you'll see, his children will be worse. Running around with that white one, isn't he, the missionary's daughter? His children will disgrace us. You'll see. And himself, to look at him he may look all right, but there's no telling what price he's paying.' She wouldn't say much about Nyasha. 'About that one we don't even speak. It's speaking for itself. Both of them, it's the Englishness. It's a wonder it hasn't affected the parents too.' (NC 207)

마이니니는 먼저 니아샤의 오빠인 키도가 쇼나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것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키도뿐만 아니라 니아샤 또한 쇼나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키도에 대한 마이니니의 비판은 곧 니아샤에게도 적용된다. 마이니니의 이러한 비판은 앞서 니아샤의 모국어 능력의 부재가 곧 민족적 정체성의 부재와 한데 맞물려 니아샤가 소외를 악화시킨다는 골의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이에 더 나아가 아매드는 “『불안한 조건들』에서 인종과 계층은 여권 신장의 문제들에 강한 영향을 준다...마이니니, 루시아, 그리고 탐부드자이의 투쟁의 현장들은 가난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사안으로 인한 권력의 빼앗김으로 얼룩져있다”(In *Nervous Conditions*, race and class impact feminist questions...Mainini, Lucia, and Tambudzai's sites of struggle are marked by disempowerment because of poverty, a very real issue; Ahmad 52)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아매드의 주장은 니아샤가 주변 인물들, 특히 여성인물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현상을 남녀 사이의 불공평한 권력의 배분의 측면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내 계층문제와도 결부시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작품에서 니아샤가 사용하는 식민지 본국의 언어, 즉 영어는 식민교육의 상징물(symbol)이다. 이는 바바무쿠루가 식민교육을 받는 동안 “맹렬한 식욕으로 영어 글자들을 탐식했”(having devoured English letters

with a ferocious appetite; *NC* 36)다는 서술과 탐부의 “아버지는 응하모의 영어구사력에 기뻐했다. 그는 그것이 가족의 해방에 있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Father was pleased with Nhamo’s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He said it was the first step in the family’s emancipation; *NC* 53)는 데서 알 수 있다. 니아샤의 영어가 상징하는 식민교육은 앞서 밝혔듯이 식민지인의 계층이동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다. 이에 라이트(Derek Wright)는 식민교육을 통해 중산계층으로 이동한 대표적인 여성인물인 마이구루가 영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저 매력적이며 비싸고 깨지기 쉬운 다기세트”(those charmingly expensive and fragile tea-set; *NC* 69)에 주목한다. 그는 “다기세트는 진정으로 영국적인 풍미를 생산해내고자 아프리카를 걸러내”(that filters out Africa to produce a more authentic English flavor; 10)는 식민교육의 또 다른 상징물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식민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에 성공한 식민지인은 토착문화를 지양하고 “영국적인 풍미”를 가진 문화를 향유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키도와 니아샤에 대한 마이니니의 비판에서 드러나는 식민지 내 부르주아 계층과 하층민 계층 간의 문화적 충돌은 곧 식민지 본국의 문화와 토착문화의 대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거터는 “응하모처럼, 탐부는 집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면 할수록 집은 그녀에게 있어 더욱 더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그녀의 오빠처럼, 탐부는 모든 토착의 것을 하찮다고 여기는 식민주의의 관점들을 내재화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Like Nhamo, the farther Tambu travels from home, the more “dirty” and distasteful it becomes to her: like her brother, Tambu risks internalizing colonial perspectives that render everything “native” unworthy; Aegerter 236)고 주장함으로써 식민교육이 식민지 본국의 문화와 토착문화의 대립뿐만 아니라 식민지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왜곡까지도 초래함을 지적한다. 에거터의 주장대로 응하모의 경우 “그가 학교에 간 후로 이 모든 가난은 그를 불쾌하게 했고, 아니면 최소한 그를 부끄럽게 했다”(All this poverty began to



offend him, or at the very least to embarrass him after he went to the mission; NC 7). 탐부 또한 바바무쿠루의 집으로 가고자 그의 차에 몸을 실었을 때 “나는 소작농이었다”(When I stepped into Babamukuru’s car I was a peasant; NC 58)면서 가난한 식민지인의 흔적이 여력한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러워한다. 그리고 마이니니는 응하모와 탐부를 통해 식민교육이 로디지아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열등한 것으로 왜곡하는 것을 목격한다. 따라서 마이니니는 로디지아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이 부재하는 니아샤가 사용하는, 마치 식민지 본국인이 하는 것 같은 “진짜”(authentic; NC 200) 영어를 들을 때마다 자신과 같은 하층민의 삶이 부르주아 계층의 삶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치는 식민교육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디지아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가르치는 식민교육에 대한 마이니니의 비판은 쇼나어를 할 줄 모르는 니아샤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된다.

##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교육

『루시』는 고향을 떠나 북미사회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식민지 출신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식민지뿐만 아니라 북미사회로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식민지 출신의 여성을 둘러싼 억압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작품은 『불안한 조건들』처럼 여성 식민지인과 교육의 문제, 즉 식민교육이라는 하나의 체제와 그 속에서 여성 식민지인이 겪게 되는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식민지 출신 여성이 북미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억압들을 겪는 가운데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작품은 『불안한 조건들』과 달리 식민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식민교육이라는 전제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식민교육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불안한 조건들』과 더불어 『루시』 또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루시는 고향 서인도제도를 떠나 북미로 건너와 상주 보모(*au pair*)의 일을 하면서 고용주인 머라이어라는 부유한 중산계층의 백인여성  
 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머라이어는 낯선 북미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로 살아가는 루시를 위해 프랑소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정 대모 또는  
 양어머니”(a fairy godmother or an adoptive mother; François 80) 역할  
 을 자처하며 물심양면 그녀를 도울 뿐 아니라 북미사회의 다양한 문물들  
 을 소개해주는 스승의 역할까지도 한다. 머라이어는 루시에게 특히 예술  
 과 관련된 다양한 문물들을 알려주는데, 일례로 “사진 찍기”(to take  
 photographs; *NC* 160)가 있다. 루시는 “내가 보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중 일부를 내게 보여주는  
 사진”(a print that made more beautiful the thing I thought I had seen,  
 that would reveal to me some of the things I had not seen; *Lucy*  
 160)을 찍으려고 노력한다. 루시의 이러한 노력은 그간 자신에게 강요되  
 어 왔던 식민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시  
 각으로 “보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보고 또한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도 보겠다는, 다시 말해 여성 탈식민주체의 시각을 갖겠다는 의지를 표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루시는 머라이어가 준 “공책”(a  
 notebook; *Lucy* 162)에 자신의 이름을 씌으로써 리마(Maria Helena  
 Lima)의 표현대로 “글을 쓰는 여성 주체”(the female writing subject;  
 Lima 863)가 된다. 루시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리마는 “『루시』와  
 그것의 전작인 『애니 존』(*Annie John*) 모두에서, 글을 쓰는 여성 주체  
 는 가부장제와 식민화 둘 다에 의해 강제당한 실향에 대한 반응으로써 무  
 언가—잃어버린 어머니/도둑질당한 땅—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된다. 루시/킨케이드가 예술가로서의 그녀 자신을 창조할 때, 그녀의 예술  
 은 그녀의 고국이 된다”(In both novels, the female writing subject  
 comes into existence to try to recover that something—the lost  
 mother/stolen land—as a reaction to the homelessness imposed both  
 by patriarchy and colonization. When Lucy/Kincaid invents herself as

an artist, her art becomes her homeland; Lima 863)고 주장함으로써, 『루시』가 예술가 성장소설(Künstlerroman)로도 정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루시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 바로 머라이어가 알려준 사진 찍기와 글쓰기였다는 점은 머라이어와 루시의 관계를 일종의 사제지간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작품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머라이어의 교육은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강제적인 면을 띄게 된다. 이는 브라운-로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라이어의 “루시의 두 공동체들 사이의 차이점들”(the difference between her two communities; Brown-Rose 47)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머라이어는 식민 지배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식민지에서의 여성의 삶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식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남성 중심적인 북미사회에서의 여성의 삶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또한 머라이어는 이 차이점들로 인해 자신의 시각이 루시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머라이어의 루시에게 북미사회의 부유한 중산층의 가치관들을 가르쳐주는 행위는 프랑소와의 주장대로 “루시의 이야기를 지적이고 단일한 문화적 패러다임 내에 위치시키려는 머라이어의 고집”(Mariah’s insistence on placing Lucy’s discourse within an intellectual and homogenous cultural paradigm; François 81)일 수밖에 없다.

머라이어의 주도하는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수선화들”(daffodils; *Lucy* 17)에 관한 일화가 있다. 루시가 머라이어의 집에서 살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머라이어는 루시와 친해질 요량으로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 “수선화들”(daffodils; *Lucy* 17)을 보여준다.

그녀가 말했다, “수선화들이 땅 밖으로 밀치고 나오는 걸 본 적  
있니? 그리고 수선화들이 활짝 펴서 한데 모두 모여 있을 때,  
산들바람이 불어와 수선화들이 그것들 앞에 펼쳐진 잔디밭을

향해 절하는 것처럼 만든단다. 그걸 본 적 있니? 난 그걸 볼 때면, 내가 살아있음에 매우 기쁘더구나.”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머라이어는 산들바람에 굽이치는 꽃들 덕택에 살아있다고 느껴진다는 거구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될 수가 있지?

내가 10살로 퀸 빅토리아 여학교 학생이었던 시절에 외우라고 했던 오래된 시 하나를 나는 기억했다. 나는 그것을 연을 이어 외웠어야 했고, 그리고 나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로 가득 찬 객석 앞에서 시를 낭송했다. 내가 낭송을 마치고 난 후, 모두가 일어서서 나를 놀라게 할 만큼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 . . 그래서 나는 겸손함과 감사함 모두를 보여주는 작은 유쾌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부터 한 연 한 연, 시의 모든 단어들을 지워버리겠다고 맹세하는 중이었다.

She said, “Have you ever seen daffodils pushing their way up out of the ground? And when they’re in bloom and all massed together, a breeze comes along and makes them do a curtsy to the lawn stretching out in front of them. Have you ever seen that? When I see that, I feel so glad to be alive.” And I thought, So Mariah is made to feel alive by some flowers bending in the breeze. How does a person get to be that way?

I remembered an old poem I had been made to memorize when I was ten years old and a pupil at Queen Victoria Girl’s School. I had been made to memorize it, verse after verse, and then had recited the whole poem to an auditorium full of parents, teachers, and my fellow pupils. After I was done, everybody stood up and applauded with

an enthusiasm that surprise me. . . . And so I made pleasant little noises that showed both modesty and appreciation, but inside I was making a vow to erase from my mind, line by line, every word of that poem. (*Lucy* 17)

머라이어는 봄에 핀 수선화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매우 기쁘다고 하지만 루시는 “오래된 시 하나”를 떠올리고는 곧 “엄청날 정도의 분노”(such an amount of anger; *Lucy* 19)를 느낀다. 물론 루시는 “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했고, 그녀는 자신이 또한 사랑하는 이것—만개한 수선화들로 가득한 숲—을 나도 사랑하길 원했”(This woman who hardly knew me loved me, and she wanted me to love this thing—a grove brimming over with daffodils in bloom—that she also loved; *Lucy* 30)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루시는 “머라이어가 보는 아름다운 꽃에서 나는 슬픔과 비통함을 본다는 사실을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nothing could change the fact that where she saw beautiful flowers I saw sorrow and bitterness; *Lucy* 30)다고 말한다.

앞서 식민지와 북미사회 사이의 좁혀질 수 없는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간극들에 무지한 머라이어가 루시에게 북미사회의 가치관을 강요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의 “수선화들”은 식민지와 북미사회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꽃을 보고 “살아있음에 매우 기쁘”다고 느끼는 머라이어를 보고 “너무 적게 가진 것의 결과를 관찰하는 데 익숙했던”(so used to observing the results of too little; *Lucy* 86) 루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될 수가 있지?”라고 반문한다. 루시가 머라이어의 삶의 방식에 대해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루시의 사회 내 사람들의 삶은 주로 고통으로 얼룩져 있거나 그들 삶의 혹독한 조건들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날씨를 마음껏 누리는 호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people’s lives in her society are marked

primarily by hardship or that they are so shackled by the harsh conditions of their lives that they are unable to accept the luxury to indulge in the weather; François 84)기 때문이라고 프랑소와는 주장한다. 프랑소와의 주장을 달리 말하자면, 수선화의 아름다움에 사심 없이 기뻐하는 머라이어의 천진난만함(naïveté)은 루시가 서인도제도에서 경험해야 했던 식민 지배<sup>22)</sup>와 극심한 수준의 남성 중심의 문화라는 “삶의 혹

---

22) 킨케이드는 보네띠(Kay Bonetti)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서인도제도에서 받았던 식민교육과 관련된 기억들을 이야기한다. 킨케이드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워즈워스, 키츠, 모든 종류의 것들을 외웠다”(I memorized Wordsworth when I was a child, Keats, all sorts of things; Bonetti 130)면서, “완벽한 장소, 완벽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갈망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로부터 왔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는 한 개인이 갈망했던 완벽함을 묘사했고, 그리고 물론 이 개인이 갈망했던 이 완벽함은 영국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도 영국을 갈망했다. 이것들은 큰 영향력이었고, 내가 이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실제로 내가 태어난 곳을 볼 수 있었다”(A sort of desire for a perfect place, a perfect situation, comes from English Romantic poetry. It described a perfection which one longed for, and of course the perfection that one longed for was England. I longed for England myself. These things were a big influence, and it was important for me to get rid of them. Then I could actually look at the place I’m from; Bonetti 130)고 말한다. 킨케이드의 이러한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식민교육을 통해 식민지인은 티핀(Helen Tiffin)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민화된 곳에서의 영국계 유럽의 문화의 가치화”(valorization of Anglo-European culture at the colonized site; Tiffin 909)와 카마다(Roy Osamu Kamada)의 표현대로 “원주민 문화의 탈가치화”(the de-valorization of the native culture; Kamada 20)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인도제도의 역사가 원주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고자 강제이주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즉 어디까지나 그것의 역사 자체가 노예사이기 때문에 킨케이드는 『어느 작은 섬』(*A Small Place*)에서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그들 중 나도 하나인, 고아가 되어버린 수백만 명의 서인도제도인들이다: 모국이, 조국이, 신들이, 신성한 땅을 위한 흙더미가, 넘쳐날 정도의 사랑과 이 사랑이 때로는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들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최악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언어가 없다”(But what I see is the millions of people, of whom I am just one, made orphans: no motherland, no fatherland, no gods, no mounds of earth for holy ground, no excess of love which might lead to the things that an excess of love sometimes brings, and worst and most painful of all, no tongue; SP 31)고 말한다. 따라서 킨케이드는 “북미에서 온 사람들이 내게 그들이 영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국이 그것의 전통들과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I cannot tell you how angry it makes me to hear people from North America tell me how much they love England, how beautiful England is, with its traditions; SP 31)면서 영국의 서인도제도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 그러나 곧 킨케이드는 “내가 가진 유일한 언어...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언어”(the only language I have...the language of the criminal who committed the crime; SP 31)로 식민 지배의 상처와 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견한다. 카마다는 킨케이드의 이러한 상황을 “킨케이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작가로서 그녀 자신이야말로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들에게 문화적 훼손을 초래했던 문학전통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Kincaid, as a writer working in English, finds herself participating in the tradition of literature which had caused so much cultural damage to herself as well as to all colonies; Kamada 21)고 해석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킨케

독한 조건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북미사회에 속한 부유한 중산계층이라는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소와는 또한 위의 인용문에 대해 “머라이어가 속한 계층적 배경과 지위는 그녀로 하여금 미학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만든다”(Mariah’s class background and position make her assume that aesthetics and politics are separated; François 85)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루시에게 “수선화들”은 과거 고향에서 받았던 식민교육을 회상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녀와 같은 식민지 출신의 여성에게는 정치와 미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된다. 루시가 “수선화들”에 식민교육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 식민지인의 삶 자체가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상흔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시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나는 기억을 가졌고, 나는 분노를 가졌고, 나는 절망을 가졌다”(I had memory, I had anger, I had despair; Lucy 134)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식민 지배의 주체였던 북미사회에 속해 있는 머라이어가 식민 지배에 대한 “기억”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수선화들은 그녀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듯 두 여성인물이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피거슨(Moira Ferguson)의 주장대로 “머라이어는 루시가 가진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정반대의 이해를 유도함을, 그리고 그 경험이 그녀를 다른 장소에 위치시킴을 이해하지 못한다”(Mariah cannot comprehend that Lucy’s experience of the world induces an oppositional understanding and sites her in a different place; Ferguson 115).

---

이드가 탈식민주의 여성작가로서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를 고발하면서도 『불안한 조건들』의 니아샤처럼 식민교육에서 배웠던 식민지 본국의 문학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낸다. 게다가 킨케이드가 식민지 본국의 문학 장르인 성장소설을 차용하여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를 비판하고 있는 글쓰기 행위는 앞서 1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탈식민주의 여성 빌등스로만이 후기식민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신생독립국의 문학과 과거 식민지 본국이었던 제1세계 문학 사이에 위치한 혼종적 공간(the hybrid space; Bolaki 11)임을 시사하고 있다.

머라이어의 무지함 외에도 “수선화들”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것은 머라이어의 “수선화들”에 대한 묘사와 루시가 고향에서 받았던 식민교육에 대한 기억이 병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루시의 식민교육과 관련하여 티핀과 챔벌린(J. Edward Chamberlin) 모두 루시가 식민지 본국의 시를 낭송하는 행위가 식민교육의 관례를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한다. 챔벌린에 따르면 “언어는 제국의 도구였고, 교육은 언어의 도구였다...문학은 언어의 가장 웅장한 표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문학은 반드시 교육의 핵심요소여야 했다”(language was the instrument of empire, education was the instrument of language...since literature was presumed to be the most eloquent expression of language, it must be a central element of education; Chamberlin 75). 티핀 또한 “영국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발췌한 시, 극적인 기성형식들, 그리고 산문의 문단들을 낭송하는 것...은 도덕적, 영적, 그리고 정치적 사상의 반복적인 주입의 효과적인 방법이다”(The reciting of poetry, dramatic set-pieces or prose passages from the works of English writers was...an effective mode of moral, spiritual and political inculcation; Tiffin 913)라면서 챔벌린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 챔벌린과 티핀의 주장을 종합하면 식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며, 특히 식민교육에서 문학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식민지인에게 식민지 본국의 언어를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문학이 식민지인에게 식민지 본국의 가치들을 주입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비지니-거버트(Lizabeth Paravisini-Gebert)의 주장대로 루시에게 있어 “수선화들”은 “지역이 갖는 통제력의 범위 밖에 있는 교육이라는 체제를 통해 그것 고유의 가치들과 규범들을 부과하는 식민주의 체제”(a colonial system that imposed its own values and cultural standards through a system of education that fell outside local control; Paravisini-Gebert 123)의 상징물이다.

위 인용문의 “수선화들”의 이미지에 주목하였던 니콜스(Jennifer J.



Nichols)는 머라이어의 눈에 비친 수선화가 마치 “바람에 의해 강제로 절을 하는”(forced by the wind to curtsy; Nichols 198)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니콜스는 수선화들이 하는 “절”(curtsy; *Lucy* 17)은 “귀족사회의 예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존경을 표현하는 여성스러운 절로 꽃을 여성화하고 외부의 힘(산들바람)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이미지”(a feminine bow of deference originating in aristocratic custom, an image that both feminizes the flowers and subordinates them to the will of an external power (the breeze); 198)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머라이어에 의해 재현된 “수선화들”의 이미지 직후에 곧바로 “수선화들”에 관한 시를 외워야했던 루시의 식민교육의 기억이 서술된다. 흥미로운 점은 머라이어에 의해 재현된 “수선화들”의 이미지에서 과거 루시가 서인도제도에서 받았던 식민교육의 궁극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스와너선(Gauri Viswanathan)은 “인물의 성격, 적절한 전개, 비판적 사고의 형성, 또는 미학적 판단의 형성과 같이 문학에 부여된 가치들이 교육자와 교육받는 자 사이의 권력관계의 역학에 더욱 명백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기란 쉽다”(it is easier to see that values assigned to literature—such as the proper development of character or the shaping of critical thought or the formation of aesthetic judgment—are...more obviously serviceable to the dynamic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educator and those who are to be educated; Viswanathan 4)고 주장한다. 교육을 받는 자는 비스와너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육의 주체가 지향하는 “도덕적 그리고 지적 가치들”(moral and intellectual values; Viswanathan 4)을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가 교육을 받는 자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의 주체가 속한 문화의 문학에는 응당 그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교육은 비스와너선의 표현대로 교육의 주체가 그것의 객체에게 행사하는 “사회정치적인 통제”(sociopolitical control; Viswanathan 3)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식민지 본국이 주도하는 문학교육 또한 “식민지 통치의 주요 제도적 지원체제”(a major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of colonial administration; Viswanathan 4)이다. 식민지 내 문학교육은 식민지의 학생들에게 식민지 본국의 문학의 정전에 속하는 작품들을 읽히고 암기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식민지 본국의 가치들을 내재화시킴으로써 문화적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완벽하게 식민 지배에 종속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 종속은 머라이어에 의해 “수선화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영향력에 종속된 이미지로 앞서 재현되었다.

머라이어의 수선화에 대한 묘사와 루시의 식민교육에 대한 기억의 병치는 이후 작품의 서술이 진행됨에 따라 머라이어의 교육 또한 식민교육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다음 날, 루시는 머라이어에게 처음으로 식민 지배와 남성 중심의 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향에서 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루시는 머라이어에게 “나의 인생 전반에 있어 유일하게 참된 사랑”(the only true love in my whole life; *Lucy* 132)이었던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세 남동생들 모두가 태어난 후 나의 어머니의 입술에 빨간 립스틱의 부재”(the absence of red lipstick on my mother’s mouth after they were all born; *Lucy* 131)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한다. 또한 루시는 머라이어에게 딸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그녀가 “흥분과 승리로 가득 찬 나의 삶”(a life for me filled with excitement and triumph; *Lucy* 130)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방치하자 결국 그녀는 “그녀와의 헤어짐”(a separation from her; *Lucy* 130)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평소 북미사회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던 머라이어는 루시의 상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서는 루시에게 서구 여성주의의 대가인 보부와르(Simone de Beauvoir)의 『제 2의 성』(*The Second Sex*)<sup>23)</sup>을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23) 작품에서 머라이어가 루시에게 건네주는 책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여자? 아주 간

한다. 머라이어의 이러한 교육에 루시는 식민지 출신의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은 이 두꺼운 책으로 정말로 설명될 수 없었다...나의 삶은 그 책보다 더 단순했고 동시에 더 복잡했다”(My life could not really be explained by this thick book...My life was at once more simple and more complicated than that; *Lucy* 132)고 항변한다. 루시의 이러한 항변은 일차적으로는 『제 2의 성』으로 대변되는 머라이어의 여성주의는 식민 지배를 경험해야 했던 여성의 삶을 포괄할 수 없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루시는 머라이어의 교육이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삶이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배제한 채 북미사회의 시각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민지 출신의 여성이라는 타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물론 머라이어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이타적인 마음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식민 지배처럼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교육의 시작점은 분명 다르다. 그러나 머라이어의 교육 또한 식민지 본국의 가치관에 충실했던 식민교육처럼 북미사회의 그것들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루시에게는 식민교육과 마찬가지로 억압적이다. 따라서 두 교육 모두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단하게, 단순한 공식들의 애호가들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자궁이고, 난소이다; 그녀는 여성이다—이 단어는 그녀를 정의하기에 충분하다”(“Woman? Very simple, say the fanciers of simple formulas: she is a womb, an ovary; she is a female—this word is sufficient to define her”; *Lucy* 132)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보부와의 『제 2의 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여성 탈식민주체의 여성성과 식민교육에의 저항

앞서 2장에서는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가 식민교육의 영향 아래 민족적 정체성과 더불어 여성성까지도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이 세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식민교육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여러 번 주장하였듯이 식민교육은 비스와너선의 표현대로 어디까지나 “식민지 통치의 중요한 제도적 지원 체제”(a major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of colonial administration; Viswanathan 4)의 일환으로, 그것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식민지인을 식민주의에 동화시켜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려는 데 있다. 따라서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가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식민교육에 대한 세 여성인물들의 반응은 그들이 새로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탐부의 경우 식민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에 성공하고자하는 열망이 세 여성인물들 중 가장 크며, 식민교육의 대리인인 바바무쿠루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적이고 정숙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탐부 또한 니아샤와 마찬가지로 바바무쿠루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후 이 충돌이 무색해 보일 정도로 탐부는 다시금 예전의 주체적인 여성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본 장은 탐부가 경험하는, 다소 의미가 작아 보이는 충돌을 과연 식민교육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탐부와 달리 주체적인 여성성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던 니아샤는 바바무쿠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로부터 “창녀”(a whore; NC 116)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식민교육과 남성 중심의 로디지아 사회에 맞서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급기야 그녀는 작품 말미에서 신경성 거식증(anorexia nervosa)이라는 극단의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식민교육이 왜곡하는 여성성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니아샤의 신경성 거식증은 『불안한 조건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현된 저항의 형태로 보이는데, 니아샤의 거식증을 저항의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루시는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머라이어의 결혼 생활과 고향에서 식민교육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어머니의 결혼생활을 결부시켜 시공간 및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갖는 두 여성인물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억압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루시는 머라이어와 어머니 모두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남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여성 모두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루시는 머라이어와 어머니의 교육이 자신에게서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빼앗고 있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루시는 어머니와 머라이어 둘 다를 떠나 자립함으로써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을 예견하며 작품의 서술을 마친다. 루시의 성장이 갖는 저항적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본 장은 루시가 머라이어와 보내는 현재에 과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병치시키는 서술 부분을 분석할 것이다.

## 여성으로서의 정숙함과 저항의 불능

식민교육을 받고 계층 상승에 성공하여 “시골의 농장집에서는 길러질 수도, 생존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자아, 깨끗하고, 차림새가 단정한, 우아한 자아”(another self, a clean, well-groomed, genteel self who could not have been bred, could not have survived, on the homestead; NC 58)를 갖고자 식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탐부조차도 인종차별적인 식민교육의 본질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어느 날 가문 내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탐부의 아버지 제러마이어

(Jeremiah)는 바바무쿠루에게 “좋은 영매”(a good medium; *NC* 148)를 불러 “정화의식”(the cleansing ceremonies; *NC* 150)을 갖자고 제안한다. 이에 바바무쿠루는 가문 내 우환들은 탐부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탐부의 부모님이 죄를 짓고 있다”(my parents were sinning; *NC* 153)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탐부의 부모에게 “교회식 결혼”(a church wedding; *NC* 149)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

아매드는 탐부의 부모가 교회식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는 “바바무쿠루의 고집을 통해 그의 식민주의적 문화 사상의 내재화가 증명된다”(Babamukuru’s internalization of colonial cultural ideology is testified to by his insistence; Ahmad 61)고 주장한다. 바바무쿠루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탐부의 서술대로 식민교육을 통해 “죄는 분명히 검은 색이”(It was definitely black; *NC* 152)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식민교육의 이러한 가르침은 기독교의 선악사상을 바탕으로 죄는 검은색이라는 성경 구절의 잘못된 해석을 아프리카인의 피부색에 적용시킨다. 그리하여 식민교육은 아프리카인의 인종 자체가 죄와 관련이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함으로써 아프리카인의 인종적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에 탐부는 자신의 부모님이 치르게 될 교회식 결혼식이 “내가 속한 사람들을 비웃고 이 세상 속 나의 합법적인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혼식”(A wedding that made a mockery of the people I belonged to and placed doubt on my legitimate existence in this world; *NC* 165)이라고 비판한다. 탐부의 이러한 비판은 그녀가 교회식 결혼식이 아프리카인이라는 인종이 죄의 상징이라는 식민교육의 가르침, 다시 말해 아프리카인의 “합법적인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식민교육의 인종차별적인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탐부는 “자연스럽게 나는 나의 부모님과 나의 집, 그리고 내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 음모를 꾸민 바바무쿠루에게 분노했다”(Naturally I was angry with him for having devised this plot which made such a joke of my

parents, my home, and myself; *NC 151*)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탐부는 “딸로서의 내 양심”(my daughterly conscience; *NC 203*)이 식민교육과 바바무쿠루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했다”(had stunted the growth of criticism; *NC 167*)고 서술한다.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순히 바바무쿠루가 자신의 가문의 가장이어서 탐부가 딸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탐부는 식민교육을 받고 계층 상승에 성공하여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을 해방시키겠다는 절실한 욕망”(the consuming desire to emancipate myself and my family; *NC 154*)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탐부에게 있어 자신의 욕망을 실현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나의 후원자이자 모든 현실적인 목적들에서 나의 아버지였던, 그리고 선하고, 모든 사랑과 존경, 그리고 복종을 받아 마땅한 바바무쿠루”(Babamukuru who was my benefactor, my father for all practical purposes and who was also good, deserving of all love, respect and obedience; *NC 151*) 뿐이다. 탐부의 “딸로서의 나의 양심”에는 자신을 교육시켜주는 바바무쿠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바무쿠루에게 맞서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탐부는 부모님이 교회식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을 계기로 식민교육과 바바무쿠루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교육과 그것의 대리인인 바바무쿠루에게 맞서는 것을 망설인다. 그럼에도 탐부는 “나는 심지어 바바무쿠루가 나에게 내 부모님을 비웃으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의 말을 들었다”(I would listen to Babamukuru even when he told me to laugh at my parents; *NC 167*)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부모님의 교회식 결혼식 당일에 몸이 마비되면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다음날 아침, 결혼식이 있던 날 아침, 나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을 알았다. 일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내

근육들은 그저 내가 그것들에게 내리는 미적지근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뿐이었다. 니아샤는 걱정했다. 그녀는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 . .

니아샤는 내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침대 밖으로 나오도록 구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나는 내 영혼이 마침내 내 몸 밖으로 미끄러져 나온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녀로부터 더욱 더 멀리 도망쳤고, 침대 발치 어딘가에 서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설득하는 그녀의 노력과 이를 무시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흥미를 갖고 지켜보았고,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꽤나 흥겨웠다. 마이구루가 들어와서는 바바무쿠루를 언급했다. 그것은 약간의 충격이었고 나는 거의 몸을 일으켰지만, 결국엔 침대 발치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비범하게 극적인 사건을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났던 일은 노크도 하지 않은 채 위험할 정도로 짜증이 난 모습의 바바무쿠루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침대 위의 몸은 심지어 꿈틀거리지도 않았다. 그동안 움직임이 자유로운 자는, 나에게 경고를 했고, 침대 발치에 있는 자는, 그가 나에게 닿을 수 없는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고, 내 자신이 그토록 똑똑한 것을 축하했다.

The next morning, the morning of the wedding, I found I could not get out of bed. I tried several times but my muscles simply refused to obey the half-hearted commands I was issuing to them. Nyasha was worried. She thought I was ill, but I knew better. I knew I could not get out of bed because I did not want to. . . .

Nyasha talked to me. She tried hard to coax me out of bed, but I was slipping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her,



until in the end I appeared to have slipped out of my body and was standing somewhere near the foot of the bed, watching her efforts to persuade me to get up and myself ignoring her. I observed with interest and wondered what would happen next. It was quite exciting. Maiguru came in and mentioned Babamukuru. That was a bit of a shock and I nearly did get up, but in the end decided to stay at the foot of the bed and watch more of this extraordinary drama. The next thing that happened was that Babamukuru walked into the room, without knocking and looking dangerously annoyed. The body on the bed didn't even twitch. Meanwhile the mobile, alert me, the one at the foot of the bed, smiled smugly, thinking that I had gone somewhere where he could not reach me, and I congratulated myself for being so clever. (NC 168)

위의 인용문은 2장에서 논의했던 대로 식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탐부가 단 한번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목이다. 이 인용문은 그녀를 단순히 계층 상승의 욕망 때문에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 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식민교육 체제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게 된 여성으로서 봐야할 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은 그것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불안한 조건들』에서 가장 적극적인 탈식민적 저항으로 손꼽히는 니아샤의 거식증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몰렸던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탐부는 결과적으로 식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그녀의 저항 가능성에 대해 난색을 표현한 것 또한 다른 이유였다.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기에 앞서 탐부는 자신의 부모님이 교회식

결혼을 올려 죄를 씻어야 한다는 바바무쿠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나약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대신 괴로움으로 나의 나약함을 숨기길 바랐다”(And still I could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my weakness, hoping instead to disguise it by suffering; *NC* 167)고 서술한다. 실제로 탐부는 이 바람대로 결혼식 당일 몸의 마비라는 육체적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몸의 마비로 인해 부모님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탐부는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고, 내 자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는 사실에 대해 축하했다”고 서술한다. 이 서술이 묘사하고 있는 탐부의 태도를 몸이 마비되기 이전 바바무쿠루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괴로움으로 회피하고자 했던 모습과 연결시켰을 경우, 몸의 마비를 빌미로 바바무쿠루와 직접적으로 맞설 필요 없이 부모님의 교회식 결혼식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탐부는 “내 자신이 그토록 똑똑한 것을 축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탐부의 몸이 마비되는 증상에 관심을 보였던 몇 안 되는 학자들 중 하나인 화이트-와일드(Flora Veit-Wild)는 위의 인용문에서 탐부가 몸의 마비를 통해 결혼식에 참석하라는 바바무쿠루의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그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한 저항의 행위”(astoundingly daring act of rebellion; Veit-Wild 334)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이트-와일드의 주장은 다음의 의문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몸의 마비 이후 탐부는 더 이상 바바무쿠루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식민교육을 받는 데 매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작품 말미에서 니아샤가 여성 식민지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왜곡하는 식민교육에 분노하여 거식증으로 그것에 저항할 때조차 탐부는 니아샤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딸로서의 양심과 새로 진학한 “성심여자대학교”(the Young Ladies College of the Sacred Heart; *NC* 189)에서의 바쁜 학교생활을 이유로 그녀를 방임한다. 둘째, 탐부는 몸의 마비를 통해 바바무쿠루에게 전면적으로 맞선 이후 오

히려 그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 탐부는 “나의 잠재의식에서 바바무쿠루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과도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막연하게 나는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할 거라 생각했다”(…Babamukuru was taking on ogre-like proportions in my unconscious mind. Vaguely I thought he might suddenly appear and do something dreadful...; NC 173)는 서술과 함께 바바무쿠루를 향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탐부의 이러한 두려움은 앞서 자신의 몸이 마비를 빌미로 부모님의 교회식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새롭게 획득한 정체성”(my newly acquired identity; NC 171)을 얻었다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는 상충한다. 즉, 탐부가 바바무쿠루를 향해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욱 학업에 매진하는 자세는 그녀가 몸의 마비를 경험한 이후 오히려 예전의 “여성으로서의 예절의 귀감”(a paragon of feminine decorum; NC 157)의 상태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바바무쿠루의 집에서 지내면서 학교에 다니게 된 이후로 탐부는 “나는 평소와 같았던 것보다 더욱 조용해졌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되었다...나는 여성으로서의 예절의 귀감이었”(I had grown much quieter and more self-effacing than was usual...I was a paragon of feminine decorum; NC 157)다고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그런 탐부를 보며 “바바무쿠루는 내가 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종류의 여성이라고 생각했다”(Babamukuru thought I was the sort of young woman a daughter ought to be; NC 157).

몸의 마비 이후 탐부가 예전보다 바바무쿠루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면서 학업에 매진하게 된 까닭은 그녀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전적으로 바바무쿠루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탐부는 “여성이고 가난하며 못 배웠다는 것에 고통 받는 나의 어머니”(my mother, who suffered from being female and poor and uneducated and black; NC 91)처럼 살지 않으려면 교육을 받아서 “품위 있는 직업을 갖고”(enter a decent profession; NC 4) “품위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to be married

by a decent man; NC 183)야 함을, 그리고 바바무쿠루는 탐부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탐부는 바바무쿠루에게 부당한 면이 있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바바무쿠루의 그늘 아래 학교에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느꼈다”(I felt secure at the mission under Babamukuru’s shadow...; NC 118)고 서술한다. 그러나 곧 바바무쿠루에게 반기를 드는 대가로 “내가 바바무쿠루의 자선에 대한 나의 권리를 상실했다”(I accepted that I had forfeited my right to Babamukuru’s charity; NC 170)는 것을 깨닫고 탐부는 바바무쿠루의 집에서 나오고자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러나 곧 탐부는 “그러자 나는 물건들이 나의 것들이 아님을 기억했고 나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 후에 다른 할 일들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방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Then I remembered that they were not my things and I put them back in their places. After that there was nothing else to do, so I stood in the middle of the room; NC 170)고 서술한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은 탐부가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장면은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자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서 기른 옥수수들을 내다 팔아 학비를 마련했을 정도로 강인했던 탐부가 『불안한 조건들』에서 유일하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다.

탐부는 바바무쿠루에게 불려갔을 때 “어떤 일이 뒤따를지 몹시도 두려워했”(But this time my feelings were entirely different. I was dreading what was to follow; NC 171)던 것과 달리 “회초리 열다섯 대”(fifteen lashes; NC 171)를 맞고 하녀인 안나(Anna)의 일을 이 주간 대신 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된 것에 “깊고 고마워하는 자기학대적인 기쁨”(a deep and grateful masochistic delight; NC 171)을 느낀다. 앞서 논의했던 그녀의 무력한 모습과 연결할 경우 탐부의 “깊고 고마워하는 자기학대적인 기쁨”은 유일한 “후원자”인 그에게 반기를 들었음에도 “회초리 열다섯 대”와 하녀 대신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용서받음으로써 “바바무쿠루가 나의 목표를 허락해줬”(Babamukuru had approved

of my direction; *NC* 57)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전적으로 바바무쿠루의 손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으로 인해 탐부는 자신의 몸의 마비가 어찌면 본인도 의식하지 못했던 식민교육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저항의 행위로 읽지 못한다.

탐부의 몸의 마비는 식민교육이라는 영역 내에서 그녀가 현재 처한, 혹은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다. 몸의 마비 전후로 탐부의 여성성이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앤드라지는 “섹슈얼리티, 심지어 섹슈얼리티에 대한 궁금증조차 탐부의 성장에서는 부재하”(Sexuality, even curiosity about sexuality, is absent from Tambu’s maturation; Andrade 141)기 때문에 “그녀의 대응관계에 있는, 저항하는 인물인 니아샤가 성적인 여성에 대한 진부한 생각<sup>24)</sup>에 도전하”(Nyasha, her resisting counterpart, issues challenges to it; Andrade 141)는 데 반해 탐부에게 이 도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앤드라지의 주장을 다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탐부와 달리 그녀 교유의 섹슈얼리티, 즉 여성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 니아샤는 식민교육과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가 그녀에게 “정숙한 소녀”(a decent girl; *NC* 115)라는 왜곡된 여성성을 교육시킬 때 이 교육에 의문을 갖고 그것에 저항하려 한다. 그러나 니아샤와 달리 탐부는 식민교육과 그것의 대리인 바바무쿠루가 그녀에게 “남성성에 반대되고 열등한 것으로서의 여성성”(Femaleness as opposed and inferior to maleness; *NC* 118)을 교육시킬 때 이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뒤엎힌 생각들을 묶여진 채로 남겨두는 것이 나에겐 쉬웠다”(it was easy for me to leave

---

24) 앤드라지는 “성적인 여성에 대한 진부한 생각”(the cliché of sexualized woman; Andrade 141)을 뒤 플레씨(Rachel Blau Du Plessis)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41). “옛날 옛적에, 소설 속 여성들의 결말, 올바른 결말은 사회적 것—성공적인 구애, 즉 결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그녀의 성적 그리고 사회적 실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이었다”(Once upon a time, the end, the rightful end, of women in novels was social—successful courtship, marriage—or judgmental of her sexual and social failure—death: Du Plessis 1).

tangled thoughts knotted; NC 118)면서 여성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회피한다. 여성성에 관해 고찰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 식민지인에게 강요되는 왜곡된 여성성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따라서 탐부는 식민교육의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본질에 저항하려고 해도 “정숙한 소녀”가 되어버린 까닭에 그녀의 저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거식증과 식민교육에의 저항

부모님의 교회식 결혼식으로 인해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는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탐부가 “전액장학금”(a full scholarship; NC 184)을 받고 성심여대에 진학하게 되면서 니아샤는 그녀와 이별하게 된다. 앞서 2장에서 논의했던 대로 다섯 살의 나이로 영국으로 가 교육을 받고 자란 까닭에 “영국화된”(Anglicized; NC 87) 니아샤는 로디지아에서 철저하게 “이방인”(stranger; NC 42)으로서의 삶을 사는 인물이다. 따라서 탐부와 이별하게 된 니아샤는 “여러모로 너는 내 삶의 몇몇 간극들을 메우는 데 있어서 내게는 매우 필수적이었는데, 이제 너는 없고, 나는 그 간극들을 다시 느끼고 있다”(In many ways you are very essential to me in bridging some of the gaps in my life, and now that you are away, I feel them again; NC 200)는 내용의 편지를 탐부에게 보낸다. 탐부와의 이별 이후 니아샤는 그녀의 부재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주변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니아샤는 탐부에게 “나는 학교에 있는 여자들과 말을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움을 발견한다”(I find it more and more difficult to speak with the girls at school; NC 200)는 것을 알린다. 또 니아샤는 바바무쿠루가 원하는 순종적인 “이상적인 딸”(the ideal daughter; NC 201)이 되어 “최선을 다해 그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doing my best not to antagonise him; NC 201)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군가의 약자가 되기를 원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누구든지 약자가 되어야 할 권리는 없다”(I’m convinced I don’t want to be anyone’s underdog. It’s not right for anyone to be that; *NC 119*)고 확신하는 니아샤는 결국 바바무쿠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실패한다. 따라서 니아샤는 탐부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써서 자신이 처한 위기와 좌절감을 알린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탐부는 니아샤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못한다. 결국 니아샤는 “나의 몸을 단련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다이어트”(a diet ‘to discipline my body and occupy my mind’; *NC 201*)에 착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탐부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이후 탐부는 성심여대에서 두 학기를 보내고 나서야 니아샤를 다시 만나게 된다. 탐부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녀가 해골같이 비쩍 마르게 되었”(she had grown skeletal; *NC 202*)을 정도로 “나의 몸을 단련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다이어트”를 한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된다.

침실에서 나는 역사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아무 말도 안했다 - 짧은 미소는 내게 그녀가 바쁨을 알렸다. 그녀는 저녁식사를 할 시간이 될 때까지 공부했다. 애너가 부르자 그녀는 자신의 책들을 덮고는 식탁으로 갔다. 그녀는 매우 조용하게 앉았고 그것은 끔찍하게 이상하고도 불길한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은 평온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바바무쿠루는 자신의 식사를 무심한 듯 깨작거리며 먹으면서 남몰래 그녀를 보고는, 그의 딸을 위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떠서 덜었고 그것을 그녀 앞에 놓았다. 니아샤는 자신의 접시를 악의를 갖고 쳐다보았고, 괴로워하는 시선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힐끗 보고선 물 두 잔을 단숨에 비운다음 자신의 포크를 집어 들고 음식을 입에 처넣었는데,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켰으며 석 잔의 물을 나눠 마시느라 멈춘 것을 제외하고서는 쉬지도 않고 먹었다. 마이구루는 침착

하게 식사를 했고, 또 다른 고깃덩이와 야채를 한 스푼 가득 내 접시에 덜어주고선 성심여대에서의 내 수업들과 친구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를 하는 등 나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니아샤의 접시가 비워졌을 때 그들 둘 모두 안도하였고 분위기는 거의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 니아샤는 그 즉시 물러났다. 나는 그녀가 책을 읽으러 침실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녀를 따라 침실로 갔을 때 방은 비어있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는 구역질하는 소리와 토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There I found her absorbed in a history text. She did not speak when I entered - a brief smile informed me she was busy. She worked until suppertime. When Anna called she put away her books and came to the table. She sat down very quietly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a horribly weird and sinister drama. Babamukuru dished out a large helping of food for his daughter and set it before her, watching her surreptitiously as he picked casually at his own meal to persuade us that he was calm. Nyasha regarded her plate malevolently, darting anguished glances at her father, drained two glasses of water, then picked up her fork and shovelled the food into her mouth, swallowing without chewing and without pause except to sip between mouthfuls from a third glass of water. Maiguru ate steadily and fussed over me, placing another chunk of meat, another spoonful of vegetables on my plate and making cheerful conversation about my lessons, my friends and the food at Sacred Heart. When Nyasha's plate was empty they both relaxed and the atmosphere returned almost to normal. Nyasha excused



herself immediately. I thought she had gone to the bedroom to read but when I followed her there the room was empty. I could hear retching and gagging from the bathroom. (NC 202)

서그넷(Charles Sugnet)은 『불안한 조건들』이 “음식과 소화를 식민주의와 “영어 글자들”(connecting food and digestion with colonialism and “English letters”; Sugnet 38)로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작품 내 인물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식민지인이 식민주의와 “영어글자들”(English letters; NC 36)이 상징하는 식민교육의 가르침을 내재화하는 것에 대한 은유(metaphor)로 보고 있다(38). 작품에서 바바무쿠루가 로디지아의 청교도계 학교와 남아공, 그리고 영국에서 식민교육을 받는 것에 매진하는 모습이 “맹렬한 식욕으로 영어 글자들을 걸신들린 듯 먹었던”(having devoured English letters with a ferocious appetite; NC 36)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것과 탐부가 성심여대로 진학하게 되자 마이니니가 그녀에게 “영국다움을 너무 많이 소화하는 것”(to stomach so much Englishness; NC 207)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서그넷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바무쿠루가 니아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여성 식민지인의 여성성을 “남성성에 반대되고 열등한 것으로서의 여성성”(Femaleness as opposed and inferior to maleness; NC 118)으로 왜곡하고 그녀에게 “정숙한 소녀”(a decent girl; NC 192)가 될 것을 강제하는 식민교육을 니아샤에게 행하는 것에 대한 은유라 볼 수 있다. 탐부나 니아샤와 같은 여성 식민지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정숙함을 강제함으로써 여성 식민지인의 여성성을 왜곡하는 바바무쿠루는 식민교육의 대리인이자 로디지아 가부장제 내 가장으로서 쇼의 표현을 빌리자면 “섹슈얼리티의 가부장적 통제”(patriarchal control of sexuality; Shaw 9)의 문제를 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성인이 된 후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작품의

서술을 진행하는 탐부는 어린 시절 자신이 바바무쿠루의 식민교육에 따라 “여성으로서의 예의범절의 귀감”(a paragon of feminine decorum; *NC* 157)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바바무쿠루는 내가 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이 관점을 니아샤에게 이해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Babamukuru thought I was the sort of young woman a daughter ought to be and lost no opportunity to impress this point of view upon Nyasha; *NC* 157)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바무쿠루로 인해 작품 전반에 걸쳐 “니아샤는 자아와 행복의 대결을 경험하는 중이었다”(she was going through of self versus surrender; *NC* 120). 바바무쿠루가 주도하는 교육의 여성 억압적인 본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니아샤는 바바무쿠루와 자신 사이의 “한 접시 음식에 대한 이 모든 소란들...그것은 정말로 그것 이상의, 음식 이상의 것이다...그것은 남자애들과 남자들, 정숙한 것과 정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착한 것과 나쁜 것에 관한 모든 것들이”(all that fuss over a plateful of food...it’s more than that really, more than just food...it’s all the things about boys and men and being decent and indecent and good and bad; *NC* 193)라는 것 또한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바바무쿠루의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식사를 하는 마이구루 또한 바바무쿠루의 식민교육에 동조하고 있다. 한때 마이구루는 딸 니아샤처럼 남성 중심의 문화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녀는 바바무쿠루에게 “당신이 나의 돈을 가져가서는 탐부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당신네 가문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에 관한”(when it comes to taking my money so that you can feed her and her father and your whole family; *NC* 174) 부당함을 제기하고서는 바바무쿠루를 떠난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이구루는 “그녀의 해방과 관련한 진진”(progress with respect to her emancipation; *NC* 200)을 이루어낸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마이구루는 이전의 주체적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바바무쿠루의 옆에서 침착하게 식사를 하고 탐부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이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니아샤의 상태를 애써 무시할 뿐, 바바무쿠루의 행동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니아샤의 신경성 거식증에 대해 침묵하고 회피하는 마이구루의 행동은 토마스의 표현대로 “복종과 자주성의 결여”(submissiveness and want of autonomy; Thomas 29)된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마이구루는 바바무쿠루의 식민교육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니아샤는 팻체이(Sheena Patchay)의 표현대로 식민교육의 “사회 내 여성들의 몸과 그녀들의 역할에 대한 경계를 분류하고, 통제하고, 명시하는 가부장적 규범들”(patriarchal codes that label, control and inscribe the boundaries of women’s bodies and their roles within society; Patchay 153)의 은유인 바바무쿠루의 음식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니아샤는 식민교육이 그녀의 몸을 통해 왜곡된 여성 식민지인의 여성성을 가시화하려고 할 때 “구역질”과 “토하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식민교육을 흡수하고 소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은유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식민교육에 저항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니아샤의 저항은 바바무쿠루 옆에서 침착하게 식사를 하는 마이구루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녀의 저항의 적극적인 면모가 더욱 부각된다.

니아샤의 거식증이 『불안한 조건들』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준의 저항이라는 점 외에도 그녀의 저항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식민교육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던 탐부에게 그것에 대한 “의심의 씨앗”(the seed of suspicion; NC 207)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이다. 이전까지는 여성 식민지인이 경험하는 억압들을 계층문제로만 환원했던 까닭에 탐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it was impossible for people who had everything to suffer so extremely; NC 207)고 생각했다. 그러나 니아샤의 거식증을 직접 목격한 후 탐부는 “나의 마음 속 무언가가 그것 자체를 드러내기를, 의문점들을 갖기를, 그리고 세뇌당하는 것을 거부하기를 시작했다”(something in my

mind began to assert itself, to question things and refuse to be brainwashed; *NC* 208)면서 처음으로 식민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물론 탐부는 아직 니아샤의 거식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을 가진 니아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길 기대해야 하는가?”(If Nyasha who had everything could not make it, where could I expect to go?; *NC* 206)라는 질문과 함께 탐부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사건들이 수년간에 걸쳐 이어지고 또 다른 책을 채우게 될, 나에게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자 발전의 과정”(a long and painful process for me, that process of expansion...whose events stretched over many years and would fill another volume; *NC* 208)을 예고하면서 『불안한 조건들』의 서술을 마친다.

## 여성의 목소리와 식민교육에의 저항

앞서 2장에서 머라이어의 교육은 비록 그 의도는 이타적이었다 하더라도 식민지배와 관련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배제한 채 북미사회의 시각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식민교육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북미사회의 부유한 중산층 출신이라는 머라이어의 사회적 배경을 이 강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머라이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북미사회의 구성원들은 “세상이 제공해야만 했던 최고의 것들과 함께 함께 부유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그들의 지위”(their position—wealthy, comfortable, beautiful, with the best the world had to offer; *Lucy* 85)를 누리며 사는 까닭에 루시와 같은 “세계의 주변지대에서 온 젊은 여성”(a young woman from the fringes of the world; *Lucy* 95)이 살면서 겪어야했던 “장기간의 결핍”(a long drought; *Lucy* 86)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sup>25)</sup> 그리고 이러한 무지로 인해 머

25) 작품에서 루시는 작품에서 과거 식민지를 찾은 북미사회 출신의 백인 관광객들에게서도 머라이

라이어와 같은 개인들은 타자의 삶에 내재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머라이어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일례로 머라이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박물관에 가본 적이 없는 루시에게 “한 남자, 세상의 절반을 가로질러 가 살았고 그가 발견했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의 그림들을 그렸던 한 프랑스 남자의 몇몇 그림들”(some paintings by a man, a French man, who had gone halfway across the world to live and had painted pictures of the people he found living there; *Lucy* 95)<sup>26)</sup>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머라이어는 식민지배의 경제적 착취로 인한 가난과 북미사회보다

---

어가 갖고 있는 무지함을 발견하고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북미사회를 포함하여 제1세계 출신의 백인 관광객들이 보이는 무지함을 가리켜 투어리즘(tourism)이라고 한다. 투어리즘이란 식민지배로 인해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서구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산업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투어리즘이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인 이유는 투자를 명목으로 산업에서 생겨난 수익 대부분이 서구로 유입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관광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구인들이 과거 식민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즐기는데 집중하느라 이 경관 뒤에는 독립 후에도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식민주의의 상흔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머라이어의 자연에 대한 애정 또한 투어리즘의 일환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이것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연 뒤에 숨겨진 신생독립국의 피폐한 삶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녀를 보며 루시는 모국의 피폐하고 부조리한 삶의 원흉인 서구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에 분노한다. 킨케이드는 이미 『루시』(1990)에 앞서 『어느 작은 섬』(*A Small Place*, 1988)에서 서구의 투어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26) 니콜스는 1996년 「미시시피 리뷰」(*The Mississippi Review*)에 실렸던 킨케이드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여 『루시』에서 등장하는 프랑스인 화가는 폴 고갱(Paul Gauguin)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평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니콜스는 킨케이드가 작품에 고갱을 등장시킨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킨케이드는 고갱에 대한 자신의 흥미가 그가 거절을 조우하고 미술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관례적인 개념들을 어기는데서 만족을 느꼈던 방법에 있다고 설명한다. 고갱의 모순은 루시가 그의 작품과 그의 삶에 대한 거부하는 것을 통해 킨케이드의 소설이라는 캔버스 위에 굴절되어 있다. 작품에서 아마도 워즈워스의 역할보다 더 클 고갱의 짧은 역할은 미국 문화에 뿌리 깊게 박힌 씨앗으로서의 “순수성”을 폭로하려는 것과 그녀의 주인공을 이 순수성에 대한 미국 문화의 자만심을 추궁하는데 있어 사용하려는 킨케이드의 원문상의 연습에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것이다. 루시의 고갱 전시회 방문은 그녀가 세계를 하나의 서술로서 보는 것과 그녀 자신을 불쾌하게 여겨질 수는 있어도 결코 변경될 수는 없는 완성된 프로젝트 대신 창조자로서 그리고 인물로서 보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Kincaid explains that her interest in Gauguin lies in the way he embraced rejection and took satisfaction in violating his contemporaries’ conventional notions about painting. Gauguin’s contrariness is refracted onto the canvas of Kincaid’s novel through Lucy’s reaction to his work and his life. His brief role in the novel, perhaps more so than Wordsworth’s, sheds light on Kincaid’s textual practices of outing “purity” as a deeply-rooted seed in American culture and using her protagonist to interrogate its conceits. Lucy’s visit to a Gauguin exhibit helps her begin to see the world as an narrative and herself as much a creator as a character rather than as a completed project that may be resented but never altered; Nichols 194).

극심한 수준의 남성 중심주의가 만연한 식민지 출신인 루시가 남성이었고, 전직 “은행가”(a banker; *Lucy* 95)로써 부유했으며,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봐줄 아내가 있었던 이 화가처럼 “세상 반대편으로 가”(went to the opposite part of the world; *Lucy* 95) “그가 타락했다고 발견했던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rebellng against an established order he had found corrupt; *Lucy* 95) 주체적인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늠하지 못한다. 그리고 루시는 이 화가의 그림들을 보며 “나는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 변두리 출신의 젊은 여자였고, 고향을 떠날 때 나는 내 어깨에 하인의 망토를 들렀었다”(I was not a man; I was a young woman from the fringes of the world, and when I left my home I had wrapped around my shoulders the mantle of a servant; *Lucy* 95)고 말하면서 자신의 박탈감을 드러낸다.

타자가 경험하는 억압들에 무지한 머라이어는 루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telling me about everybody; *Lucy* 139) 행동, 즉 특수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갖는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경험을 모두가 겪는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문제는 머라이어의 이러한 오류가 한 개인이 타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억압들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아버리는 위험을 갖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머라이어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머라이어는 루시와 같은 타자가 겪는 억압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는 억압에 대해서도 무지한 모습을 보이며 따라서 이 억압에 대해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머라이어 본인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억압의 실체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 루이스(Lewis)의 대조적인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루시의 시선에서 드러난다. 루이스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다이너(Dinah)와 불륜관계에 있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머라이어의 “자라나는 것들에 사랑을 쏟는 아름다운 황금빛의 어머니”(beautiful golden mother pouring love over growing things; *Lucy* 46)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그녀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that the only man she had ever loved would no longer love her; *Lucy* 81)을 상상조차 못하는,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 나간, 공허한 늙은 여인”(a hollow old woman, all the blood drained out of her face; *Lucy* 46)의 모습이다. 반면 루시의 눈에 루이스는 권위와 자신만만함에 가득 찬, “그의 옆얼굴의 특징들이 마치 그것들이 동전이나 우표에 속한 것처럼 보였”(his features in profile looked as if they belonged on a coin or a stamp; *Lucy* 48)다.

물론 머라이어러를 둘러싼 상황이 과연 그녀에게 억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루시의 서술이 머라이어러의 모습에 어머니의 기억을 병치시킴으로써 두 여성인물들이 인종 및 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빗나간 사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이라는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루시는 머라이어러의 “늙고 사랑받지 못하는”(old and unloved; *Lucy* 46) 모습과 “나의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나의 아버지가 되돌려주지 않았던 여성들이 나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women who had loved my father, and whose love he had not returned, try to kill her; *Lucy* 48)던 기억을 한 데 병치시킴으로써 남녀 관계에서 보답 받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고통 받는 여성의 모습을 지적한다. 그리고 루시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보답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오비아 주술을 통해 나의 어머니와 나를 죽이려고 했”(had tried to kill my mother and me through obeah; *Lucy* 150)으면서도 “그들이 그의 머리카락조차 건드리지 않고 내 아버지는 가만두었”(they left my father without so much as a signed hair on his head; *Lucy* 48)던 기억과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루이스가 자신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지 않”(he didn't draw attention to anything about him; *Lucy* 48)는 개성의 소유자라는 묘사와 병치시킨다. 이 두 남성인물은 자신들이 결혼생활의 불화에 원인

을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있다는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머라이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나 정확히 알고, 모든 것이 그를 위해 행해지는...그런 종류의 사람—대부분의 경우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그가 머라이어를 떠난 것임에도, 그는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그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He was the sort of person—a cultivated man, usually—who...always knew exactly what he wanted, and so everything was done for him...He would leave her, but he would make her think that it was she who was leaving him; *Lucy* 119)다. 루시는 머라이어가 루이스로부터 기만당하는 상황을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고 그로인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여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기억에 연결시킴으로써 인종, 국가, 그리고 계층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화에서 남성들이 이 불화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지적한다.

이에 더 나아가 루시는 자신에게 서구의 문물을 전수해주는 역할, 즉 스승의 역할을 하는 머라이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여성들만이 처하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무지한 채 이 부조리함을 전혀 지적하고 있지 않은 서구의 이론을 자신에게 강요하는 모순된 행위에 대해 비판한다.

나는 그녀에게 이걸 말하고 싶었다: “당신의 상황은 일상적인 것이에요. 남자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구요. . . .” 그러나 나는 그녀의 반응이 어떨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부한 말이야”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녀는 “네가 이런 일들에 대해 무얼 알겠니?”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맞았을 수도 있다; 그건 진부한 말이었고, 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에 개인적인 경험이 없었다. 그래도, 내가 온 곳에선, 모든 여자들이 이 진부한 말을 알고 있었다. . . . 남자들은 정조관념이 없다는 걸, 그



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걸 모두가 알았다, 이것이 남자들이 그토록 법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이것이 그들이 그런 것들은 발명해야만 했던 이유였다—그들은 안내서가 필요하다. 남자들은 그들이 무얼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 그들은 법에 상담했다. 만약 안내서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충고를 그들에게 하면, 그들은 안내서를 바꿨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었다; 왜 머라이어 또한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그녀에게 이걸 말했더라면 그녀는 기껏해야 내게 자기가 어딘가에 뒀던, 내가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되는 책 하나를 보여줬을 것이다—필시 아무것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여자가 쓴 책 말이다.

I wanted to say this to her: “Your situation is an everyday thing. Men behave in this way all the time. . . .” But I knew what her response would have been. She would have said, “What a cliché.” She would have said, “What do you know about these things?” And she would have been right; it was a cliché, and I had no personal experience of a thing like that. But all the same, where I came from, every woman knew this cliché. . . . Everybody knew that men have no morals, that they do not know how to behave, that they do not know how to treat other people. It was why men like laws so much; it was why they had to invent such things—they need a guide. When they are not sure what to do, they consult this guide. If the guide gives them advice they don’t like, they change the guide. This was something I knew; why didn’t Mariah know it also? And if I were to tell it to her she would only show me a book she had

somewhere which contradicted everything I said—a book most likely written by a woman who understood absolutely nothing. (*Lucy* 141)

위의 인용문에서 머라이어의 대한 루시의 비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루시는 루이스가 머라이어한테 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는 상황은 서인도제도뿐만 아니라 북미사회에서도 흔한, 다시 말해 여성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부조리라는 것에 머라이어가 무지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루시는 “필시 아무것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여자가 쓴 책”을 가지고 이 여성의 문제가 범지구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신에게 왜곡된 시각을 교육시키려는 머라이어를 비판한다.

그런데 머라이어에 대한 루시의 비판이 “내가 머라이어한테 나는 떠난다고 말했던 때”(When I told Mariah that I was leaving; *Lucy* 141)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루시는 먼저 “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밤에 나의 떠남은 시작되었다”(My leaving began on the night I heard my father had died; *Lucy* 138)면서 어머니하고도 절연하기로 결심한다. 따라서 루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답장을 할 수 없도록 가짜 주소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마지막 답장”(a last reply to her; *Lucy* 139)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루시는 또한 “나는 곧 내가 루이스와 머라이어와 함께 살았던 것을 과거로 만들 것임을 알았다”(I knew I would soon make living with Lewis and Mariah past; *Lucy* 140)고 서술한다. “루이스와 머라이어와 함께 살았던 것을 과거로 만들”으로써 루시가 결국에는 머라이어의 교육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차적으로는 범지구적인 여성의 문제에 무지한 머라이어가 자신에게 왜곡된 시각을 강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어머니와 절연하기로 한 루시의 결심 또한 머라이어의 교육을 거부하는데 있어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루시가 어머니와의 절연하는 행위와 그녀가 머라이어의 교육을 거부

하는 행위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논의 했듯이 북미사회의 부유한 중산층 출신으로 인종과 계층 면에서 주류에 속하는 머라이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루시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타자가 된다. 이 공통점 외에도 두 여성인물은 자신들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 또한 갖는다. 루시는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날 머라이어에게 자신이 “흥분과 승리로 가득 찬 나를 위한 삶”(a life for me filled with excitement and triumph; *Lucy* 130)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아들들에게만 신경을 쓰느라 자신을 방임했던 어머니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뿐만 아니라 루시는 “나의 어머니는 나를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그녀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my mother knew me well, as well as she knew herself; *Lucy* 130)고 고백한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그녀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는 루시의 서술은 루시 뿐만 아니라 루시의 어머니 또한 “흥분과 승리로 가득 찬 나를 위한 삶”, 즉 주체적으로 영위해나가는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루시의 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겪는 부당함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자신의 의무들에 헌신하였”(My mother was devoted to him...to her duties; *Lucy* 126)고,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자신과 루시의 삶을 억압하는 것을 방임했다. 따라서 루시는 “어머니는 그녀 자신을 배신했고...그녀는 나 또한 배신했다”(she had betrayed herself...she had betrayed me also; *Lucy* 127)고 결론을 내린다. 머라이어의 경우, “루이스가 그녀를 떠난 것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녀가 그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했”(Lewis had left her, she really thought she had asked him leave; *Lucy* 128)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머라이어는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함에 무지한 채로 남는다. 그리고 이 무지함으로 인해 머라이어 또한 루시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남편으로부터 기만당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물론 두 여성인물이 공통의 억압을 겪고 있음에도 각 인물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미사회보다 극심할 정도로 남성 중심적이고 식민지배의 경제적 착취로 인해 가난이 만연한 서인도제도에서 루시의 어머니가 경험해야 했던 억압과 비교했을 때 북미사회의 부유한 중산층 여성인 머라이어가 겪는 억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경우 머라이어는 루시의 어머니보다 여러 면에서 더 유리한 상황에 있으므로 루시의 어머니에 비해 주체적인 삶을 도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머라이어는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자신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루시의 어머니처럼 남편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루시는 머라이어와 함께 하는 현재에 과거 어머니와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병치시키는 서술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항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타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라이어의 교육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와 절연하기로 한 결심을 병치시킨 루시의 서술은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머라이어의 책과 같은 북미사회의 문물들을 근거로 루시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막고 있음을, 즉 니콜스(Jennifer J. Nichols)의 주장대로 “머라이어의 루시를 그녀의 또 다른 분신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는 영국의 교육제도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Mariah’s project of making Lucy into an echo of herself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British education system; Nichols 203)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루시는 머라이어의 교육을 거부함으로써 머라이어와 자신의 어머니와 달리 자신은 목소리를 냄으로써 타자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여성 탈식민주체의 성장

앞서 2장에서는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에서 재현된 식민교육의 식민주의적 측면과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양상에 대해, 그리고 3장에서는 탐부, 니아샤, 그리고 루시가 식민교육에 대해 보이는 저항적인 반응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니아샤와 루시라는 인물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두 인물 각각이 갖고 있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식민주의와 더불어 남성 중심의 민족주의에 묻힌 여성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이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을 포함하여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문학작품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니아샤와 루시 두 여성인물이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녀들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 탐부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식민교육이 보장하는 계층 상승을 통해 경제적으로 보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그녀가 결국 여성 식민지인에게 정숙함과 순종을 강요하는 식민교육을 상대적으로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부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작품 말미에서 탐부가 니아샤의 거식증을 계기로 식민교육의 동화과정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의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탐부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과정은 어디까지나 『불안한 조건들』 보다는 그것의 후속작인 『부정의 책』(*The Book of Not*)<sup>27)</sup>에

27) 2006년에 출간된 『부정의 책』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로디지아가 짐바브웨로 독립하는 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인 중심의 성심여대에서 몇 안 되는 흑인 여학생이었던 탐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백인 소유의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게 되면서 일

서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부정의 책』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본 장에서는 탐부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니아샤와 루시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게 된 계기는 각각의 인물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를 확연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니아샤와 루시 모두 식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시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니아샤의 경우, 우와케의 주장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저항을 지지받지 못하는 까닭에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며 그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면서(Uwakweh 82) 그녀의 저항은 퇴보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니아샤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극복하지 못한 까닭에 결과적으로 루시에 비해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셈이다. 니아샤의 좌절감과 무력감이 그녀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본 장에서 논의해 볼 것이다.

루시의 경우, 그녀는 브라운-로즈의 주장대로 해소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감당하면서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문화라는 이중의 억압이 자행되고 있는 서인도제도를 상징하는 어머니와 절연하기로 한다(Brown-Rose 41). 앞서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루시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머라이어의 교육 또한 거부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루시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겠다는 의지, 즉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루시의 홀로서기가 세 인물들의 성장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런의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그리고 당시 짐바브웨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작품은 식민교육이 자신의 삶을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탐부가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식민교육에 대해 환멸과 독립 후에도 식민지배의 상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짐바브웨의 혼란,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신생독립국의 민족주의를 그리고 있다.

## 서발턴과 성장의 좌절

니아샤는 『불안한 조건들』 속 여성인물들 중에서 식민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니아샤의 주변사람들은 그녀가 부유한 중산층 출신인데다가 어린 시절을 식민지 본국인 영국에서 보냈던 까닭에 그녀의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도 영국화가 된 것을 빌미로 그녀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동시에 그녀의 저항을 영국화된 행동의 일부라고 경시한다. 니아샤는 주변의 여성인물들로부터 소외받으면서도 바바무쿠루와 그의 식민교육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신경쇠약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녀는 사납게 날뛰며 돌아다녔고, 그녀의 이빨로 그녀의 역사책을 찢었고 (‘그들의 역사. 께썸한 거짓말들. 그들의 빌어먹을 거짓말들.’), 거울과 점토 그릇들, 그녀가 손을 댈 수 있는 무엇이든지 찢고, 맹렬하게 그녀의 몸을 깨진 조각들로 찢렸으며, 이부자리를 벗겨냈고, 옷장에 있는 그녀의 옷들을 찢었고 그것들을 발로 밟아 몽갓다. ‘그들은 우리를 가뒀어. 그들은 우리를 가뒀어. 하지만 난 갇히지 않을 거야. 난 착한 소녀가 아니야. 난 갇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더니 분노는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사그라졌다. ‘아빠, 난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그러길 원하지만, 난 그러지 않을 거예요. . . .’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봐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들 중 하나도 아니지만 당신들 중 하나도 아니에요. . . .’

하지만 정신과의사는 아프리카인들은 우리가 묘사했던 방식으로 고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니아샤는 애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랬다.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단호하게 대해야만 했다. 이것은 아프리카인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니아샤의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앞에서 만난 정신과 의사의 말들을 대단한 위안으로 삼으며 움탈리로 즉각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나의 삼촌 앞에서 할 만한 분별 있는 말은 아니었다.

She rampaged, shredding her history book between her teeth ('Their history. Fucking liars. Their bloody lies.'), breaking mirrors, her clay pots, anything she could lay her hands on and jabbing the fragments viciously into her flesh, stripping the bedclothes, tearing her clothes from the wardrobe and trampling them underfoot. 'They've trapped us. They've trapped us. But I won't be trapped. I'm not a good girl. I won't be trapped.' Then as suddenly as it came, the rage passed. 'I don't hate you, Daddy,' she said softly. 'They want me to, but I won't. . . .' 'Look what they've done to us,' she said softly. 'I'm not one of them but I'm not one of you.' She fell asleep. . . .

But the psychiatrist said that Nyasha could not be ill, that Africans did not suffer in the way we had described. She was making a scene. We should take her home and be firm with her. This was not a sensible thing to say in front of my uncle, who found these words vastly reassuring and considered going back to Umtali at once, turning a deaf ear to Nyasha when she begged to see an African psychiatrist. (NC 204)

위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니아샤의 신경쇠약을 대하



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이다. 처음에 니아샤의 신경쇠약을 진찰했던 정신과 의사는 흑인은 신경쇠약에 걸릴 수 없기 때문에 니아샤의 이상 행동은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니아샤의 신경쇠약을 경시한다. 마이구루 또한 딸의 증상에 속수무책으로 있을 뿐이며, 니아샤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탐부조차 니아샤의 상태에 대해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I had no explanation; *NC* 207)고 말할 뿐이다. 이에 니아샤는 “아프리카인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니아샤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바바무쿠루는 이마저도 듣지 않는다.

신경쇠약에 걸린 니아샤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사람들의 관계에서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의 서발턴(subaltern) 개념을 떠올려 보게 된다.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에서 서발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서발턴이 말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사례들 중에서 니아샤의 신경쇠약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논의하는 데 있어 특히 유용한 사례는 부마네스와리 바두리(Bhubaneswari Bhaduri)라는 여성의 사례이다. 십대 후반이었던 바두리는 1926년 북캘커타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자살을 했을 당시 그녀는 월경 중이었기 때문에 남자 문제로 자살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명이 났지만, 아무도 그녀가 왜 자살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십년 후에 발견된 바두리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가 자살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자살 당시 바두리는 인도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에 참여했던 여러 집단들 중 하나에 속해 있었다. 바두리는 편지에 자신에게 한 정치인을 암살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는데 자신은 이 지령을 수행할 수 없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에도 신의를 보여야 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적었다(Spivak 62-63).

스피박은 바두리가 월경 중에 자살을 실행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읽어내려고 노력했다. 스피박은 바두리의 사례를 인도의 독립에 헌신하는 투쟁적인 어머니상과 사티(sati)는 곧 자살이라는 인도만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sup>28)</sup>을 개입시키는 것을 지양하면서 바두리라는 여성 서발턴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이에 실패했기 때문에 1988년에 출판되었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첫 판본에서는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2010년 판에서 스피박은 자신의 주장을 조금 수정하는데, 이 때 그녀는 「사이코렉스를 침묵시키며」 (“Silencing Sycorax”)를 썼던 부시아(Abena P. A. Busia)의 지적을 언급한다. 스피박은 자신이 부바네스와리를 읽으려고 한 노력은 곧 “그녀가 어떤 식으로라도 말했다”(she has spoken in some way; Spivak 64)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결국 부바네스와리라는 서발턴은 말한 셈이 된다는 부시아의 주장을 수용한다. 그러면서도 스피박은 “모든 말하기는, 심지어 외견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말하기도 타인이 거리를 두고 한 해독, 즉 기껏해야 끼어들기 일 뿐인 해독을 수반한다”(All speaking, even seemingly the most immediate, entails a distanced decipherment by another, which is, at best, an interception; Spivak 64)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년 후 학문적 기관(싫든 좋든 하나의 지식-생산 공장)의 누군가가 한, 고려할 가치도 없는 해독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서발턴의 “말하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Yet the moot decipherment by another in an academic institution (willy-nilly a knowledge-production factory) many years later must not be too quickly identified with the “speaking” of the subaltern; Spivak 64)는 주장과 함께 여전히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선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인다.

스피박의 주장을 니아샤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저항이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니아샤가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는 결말은 그녀의 말하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니아샤라는 서발턴의

---

28) 사티는 과부가 된 여성이 죽은 남편을 따라 스스로를 화장하는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이다. 스피박은 사티가 사실상 과부가 된 여성에게 강요된 자살임에도 그것이 여성에게 허용된, 육체를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지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58).

말을 주변인물들이 끝내 “해독”하지 못한 것 또한 스피박이 주장대로 서발턴이 말하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니아샤가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니아샤의 신경쇠약이 주변사람들로부터 단순한 소란으로 치부되는 상황에 주목한다면, 다시 말해 왜 주변사람들은 서발턴의 말하기를 해독할 수 없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한다면 서발턴의 말하기의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회의적인 깨달음 대신 니아샤의 주변인물들이 매몰되어 있는 지배가치들과 이데올로기들-예를 들어, 인종주의, 식민주의,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불안한 조건들』은 식민지배의 경제적 착취로 인해 식민지에 만연하게 된 가난, 식민지인의 계층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민교육, 그리고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탐부와 니아샤라는 두 여성인물의 성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서발턴의 말하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는다면, 비록 스피박의 주장대로 니아샤의 신경쇠약이 갖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대신 무엇이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니아샤의 신경쇠약을 해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다시 말해 여성 식민지인을 억압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배가치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부조리하고 부당한지 비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가해자로서의 식민지 본국 대 희생자로서의 식민지라는 대결구도에만 초점을 맞췄던 비평의 경향에서 벗어나 식민지 내부로 비평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아샤와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에 저항하는 여성인물들이 자신들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니아샤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태도, 즉 여성 식민지인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도 니아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해진다.

니아샤의 신경쇠약을 통해 한 여성 식민지인을 둘러싼 다양한 억압

들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니아샤의 성장과정은 분명히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니아샤의 성장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특히 루시의 성장과정과 비교했을 경우 두 여성인물들은 주체적으로 여성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여성인물들 모두 적극적으로 식민교육에 저항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니아샤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결국 좌절하는 반면, 루시는 오히려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써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주인공의 한 사례가 된다.

### 혼종성과 여성 탈식민주체의 성장

3장에서 논의하였듯이 머라이어의 이혼과 아버지의 죽음을 연달아 목격하게 되면서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곧 스스로마저 자신을 타자화하는 것임을 깨달은 루시는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해도 이 실패를 자신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어머니와 머라이어와 결별하기로 결심한다. 루시의 이러한 행보와 관련하여 브라운-로즈는 “루시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고국을 거부함을 뜻하며, 머라이어를 향한 그녀의 비난은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Lucy’s dismissal of her mother signifies a rejection of her “home” country and her denunciation of Mariah can be extended to United States; Brown-Rose 41)고 주장한다. 루시의 향후 행보에 관한 브라운-로즈의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루시의 거부가 서인도제도에 대한 거부인 이유와 머라이어에 대한 루시의 비판이 곧 미국에 대한 비판인 이유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점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루시가 어머니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루시에게 있어 어머니는 여성 식민지인을 둘러싼 주요 두 억압체제인 식민주의와 남성 중

심의 토착문화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루시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주체적인 삶에 대한 본인의 열망뿐만 아니라 루시의 열망까지도 묵살하고 “새로 태어난 아들이 영국에 있는 대학교로 가 의사나 변호사, 혹은 사회 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갖는 누군가가 되고자 공부할”(the new child would go to university in England and study to become a doctor or lawyer or someone who would occupy an important and influential position in society; *Lucy* 130)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딸 루시에게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숙하고 순종적이며, 언제나 희생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루시의 어머니는 루시를 자신의 “사십 살 된 목소리”(forty-year-old voice; *Lucy* 107)를 가진 “직접적인 모조품”(a direct imitation; *Lucy* 106)으로 만들고자 했다. 즉, 마할리스(Kristen Mahalis)의 주장대로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회복하려는 루시에게 “루시의 어머니는 루시가 착한 아내와 착한 식민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식민주의적 규율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Lucy’s mother acts as an agent of colonial discipline, expecting Lucy to fulfill the role of good wife and good colonial subject; Mahalis 169).

루시가 어머니를 거부하는 행위가 곧 서인도제도를 거부하는 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작품에서 루시의 어머니가 서인도제도와 등위관계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루시의 어머니와 서인도제도의 등위관계는 루시가 성서(Bible)에서 차용한 죄와 벌의 이미지에 의해 증명된다(*Lucy* 152). 죄와 벌의 이미지는 루시가 성서 속 등장인물들인 신과 사탄(Satan)을 대입하여 과거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서 활용된다(*Lucy* 152). 루시는 “내가 나의 어머니한테 왜 그녀가 내 이름을 루시라고 지었는지 물었을 때”(when I asked my mother why she had named me Lucy; *Lucy* 152) “작은 목소리로 그녀는 “난 사탄의 이름을 따서 네 이름을 지었다. 루시, 루시퍼의 줄임말로 말이야”라고 말했다”(under her breath she said, “I named you after Satan himself. Lucy, short for Lucifer”; *Lucy* 152)던 기억을 떠올린다.<sup>29)</sup> 이어서 루시

는 “나의 어머니가 나를 악마 같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종종 그녀를 신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That my mother would have found me devil-like did not surprise me, for I often thought of her as god-like...; *Lucy* 153)고 서술한다. 이와 같은 서술에서 루시는 어머니에게는 벌을 주는 신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는 신에게 반항하는 죄를 저지른 사탄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다. 북미로 건너 온 이후 머라이어의 가족과 함께 그들의 별장이 있는 “그레이트 레이크”(a Great Lake; *Lucy* 36)에서 처음 여름을 맞이하게 된 루시는 북미 “여름의 더위는 내가 익숙해하던 더위와는 달랐다”(The heat of summer was different from the heat I was used to; *Lucy* 51)고 서술한다. 루시는 “내가 익숙해하던 더위”, 즉 서인도제도의 “더위는 세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이유로 당신을 향해 처음에는 경고처럼, 그리고 나서는 벌처럼 돌진하는 더위였다”(It was a heat that bore down on you, first as a warning, then as a punishment, for sins too numerous to count; *Lucy* 52)고 하면서, 서인도제도의 더위를 죄와 벌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죄와 벌의 이미지를 활용한 날씨 묘사와 어머니를 “신”에 그리고 자신을 신에게 반항한 죄를 저지른 “사탄 그 자신”(Satan Himself; *Lucy* 152)에 비유한 것을 한데 결부시킬 경우 다음

---

29) 작품에서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루시의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저항의 상징인 루시퍼에서 따서 지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루시의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지은 의도는 당시 임신한 상태에 있던 그녀에 관한 루시의 서술이 그녀가 루시에게 이름의 기원을 설명하는 장면 바로 직전에 위치한 것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루시에 따르면 “비쩍 마르고, 오그라들고, 영양실조의 상태였고 (나의 어머니는 식욕이 없었다), 어머니다운 면모가 없었다”(thin, shriveled, undernourished (my mother had no appetite), unmaternal; *Lucy* 151) “그녀는 그녀의 아들들 중 막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녀는 임신하기를 원치 않았었고, 세 번이나 아이를 떼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수단들은 실패했고 그녀는 임신한 채로 남아있었다”(She was pregnant with the last of her children. She did not want to be pregnant and three times had tried to throw away the child, but all her methods had failed and she remained pregnant; *Lucy* 151). 루시의 당시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서술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뱃속 아기를 없애려고 세 번이나 낙태를 감행할 정도로 여성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에 지쳐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딸의 이름에 억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행동에서 딸만큼은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을 은연중에 엿볼 수 있다. 이는 작품에서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문화의 대리인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는 루시의 어머니의 또 다른 면모라 할 수 있다.

의 상당히 흥미로운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비유 구도는 “신과 같은” 어머니가 있는 서인도제도의 “벌처럼 돌진하는 더위”를 죄를 지은 “사탄”으로서의 루시가 일종의 “경고”와 “벌”을 받는 행위에 결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루시가 자신의 어머니를 고향 서인도제도 그 자체와 등위관계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루시는 밀튼(John Milton)의 『실낙원』 (*Paradise Lost*)의 주요 등장 인물인 루시퍼(Lucifer)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Lucy* 152) 자신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을 역설하고 있다.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she loved me without reservation; *Lucy* 155)고 루시에게 있어 어머니 또한 “내 인생 전반에 걸쳐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하게 참된 사랑”(the only true love in my whole life I would ever know; *Lucy* 132)이자 “신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의 대리인이었던 어머니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고자 했던 루시는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루시퍼가 “정복 불가능한 의지”(the unconquerable Will; *PL* I.106)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로부터 우리만의 선을 추구하고 우리의 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자”([to] seek / Our own good from ourselves, and from our own / Live to ourselves...; *PL* II.252-54) “천국의 폭군”(the tyranny of Heav'n; *PL* I.124)인 신에게 저항하고 그를 떠났던 것처럼 루시 또한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어머니와 서인도제도를 거부한다.

머라이어는 루시에게 북미사회의 문물들을 전수해줌으로써 일종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루시는 작품 전반에 걸쳐 자신과 같은 식민지 출신의 여성이 겪어야 했던 억압들이 갖는 고유의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 무지한 머라이어가 북미사회의 문물들을 근거로 이 억압들을 일반화함으로써 여성 탈식민주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루시가 머라이어의 주도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교육과 북미사회가 제3세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머라이어로 대변되는 북미사회 부유한 중산층의 정치적 무지함, 다시 말해 루시와 같은 타자들이 경험해야 했던 억압들에 대한 무지함이다.

북미사회 부유한 중산층의 정치적 무지함은 머라이어가 루시를 위해 열어준 파티에 참석한 머라이어의 지인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루시는 “어찌 보면 그들 전부 섬—섬이라면서, 그들은 내가 있던 곳이라고 했다—에 가본 적이 있었고, 그 곳에서 재미있게 놀았었다. 나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They had somehow all been to the islands—by that, they meant the place where I was from—and had fun there. I decided not to like them just on that basis; *Lucy* 64)고 서술한다. 루시에게 있어 서인도제도는 식민지배로 인해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이 왜곡되었던 공간이다. 이 곳에서 루시는 자신들의 섬을 식민 지배했던 민족을 찬양하는 “지배하라, 브리타니아여! 브리타니아여, 파도를 지배하라; 영국인들은 절대, 절대 노예가 되지 않으리니”(…Rule, Britannia! Britania, rule the waves; Britons never, never shall be slaves; *Lucy* 135)라는 노래<sup>30)</sup>를 부르며 자랐다. 뿐만 아니라 어린 마음에 루시는 “무표정한 얼굴에 심술궂은 입매를 가진 여자”(a stony face, sour-mouth woman; *Lucy* 136)인 영국여왕<sup>31)</sup>의 지배 대신

30) 1739년 영국 해군은 스페인령 파나마(Panama)의 포르토벨로(Portobelo)에서 스페인 해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이로써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해양권을 장악한다. 영국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급부상과 함께 이 무렵 영국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수많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톰슨(James Thompson)이 쓴 「지배하라, 브리타니아여」(“Rule Britannia”)이다. 이 시에 오페라 『알프레드 대왕』(*Alfred*)의 피날레 합창의 음을 붙여 『루시』에서 등장하는 「지배하라, 브리타니아여!」(“Rule Britannia!”)가 만들어졌다. 이 노래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영국을 상징하는 비공식 국가로 자리 잡는다. (영국의 정식 국가는 왕정복고 때부터 사용해 온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이다.) “지배하라, 브리타니아여! 브리타니아여, 파도를 지배하라”라는 후렴구는 영국해군을 상징적인 문구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적인 장소에서 이 노래를 연주하는 것이 기피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래의 가사가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2절의 “그대만큼 축복받지 못한 나라들은 / 반드시 차례로 그들 폭군의 파멸로 이르리니”(The nations, not so blest as thee, / Must, in their turns, to tyrants fall)라는 가사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오늘날 이 노래가 연주될 경우 2절은 생략된다.

31)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를 가리킨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2월에 즉



“우리 서인도제도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의 지배를 받았더라면: 프랑스인들은 더 예쁘고, 더 행복하니까”(If only we had been ruled by the French: they were prettier, much happier in appearance...; *Lucy* 136)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민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루시는 “섬에서의 나의 존재의 기원—나의 조상의 역사—은 잘못된 행동<sup>32)</sup>의 결과였”(the origin of my presence on the island—my ancestral history—was the result of a foul deed; *Lucy* 135)고, 이로 인해 “나는 영국인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노예였”(I was not a Briton and that until not long ago I would have been a slave; *Lucy* 135)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여성 식민지인을 둘러싼 억압들에 무지한 북미사회의 부유한 백인 관광객들은 루시와 같은 여성 식민지인이 식민지배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에 대한 “기억”(memory; *Lucy* 134), “분노”(anger; *Lucy* 134), 그리고 “절망”(despair; *Lucy* 134)을 가진 공간에서 “재미있게 놀”(had fun; *Lucy* 65) 뿐이다. 따라서 루시는 자신과 같은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삶이 갖는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인 식민지배에 대한 북미사회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지함에 분노하고 이를 비판하며 북미사회에 속하는 것 또한 거부하게 된다.

루시는 서인도제도와 북미사회 모두를 거부함으로써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서인도제도와 북미사회 모두를 거부하는 루시의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 공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루시의 결심이 갖는 의미부터 논의해야 한다. 루시의 이러한 결심은 바바(Homi K. Bhabha)의 “사이의’ 공간”(‘in-between’ space; Bhabha 5)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바바는 르네 그린(Renée Green)<sup>33)</sup>이라는 아프리카계

---

위한 후 현재(2014년)까지 영국의 여왕으로 재위중이다.

32) 콜럼버스가 1493년에 서인도제도를 발견한 사건을 말한다.

33) 미국 출신의 예술가 르네 그린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예술가로 작가, 사진가, 영화감독, 그리고 조각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웨슬리언 대학교(Wesleyan University)를 졸업할 당시 썼던 석사논문인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흑인 및 백인 비평가들에 의해 쓰여졌던 비평들의 원문분석」(“Textual Analysis of Criticisms, Which Were Written by Both

미국인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인용한다. 그녀는 박물관에 설치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박물관 내 각 층들을 연결해주는 “계단통은 경계 공간으로, 즉 각각이 흑인성을 지칭하는 명판과 백인성을 지칭하는 명판을 단 위의 공간들과 아래의 공간들 사이의 통로가 된다”(The stairwell became a liminal space, a pathway between the upper and lower areas, each of which was annotated with plaques referring to blackness and whiteness; Bhabha 5)고 설명한다. 바바는 이 설명을 활용하여 “‘사이의’ 공간”에 대해 논의한다.

정체성의 명칭들 사이에 있는 경계공간으로서의 계단통은 상징적 상호작용의 과정, 즉 위와 아래 사이, 흑과 백 사이의 차이점을 조립하는 결합조직이 된다. 계단통의 이쪽과 저쪽, 즉 계단통이 허락하는 일시적 움직임과 통로는 계단통의 각 끝에 있는 정체성들이 근본적인 양극성으로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한다. 고정된 동일화들 사이에 있는 이 통로는 사실로 추정되는 위계질서나 강요된 위계질서 없이 차이를 품고 있는 문화적 혼종성의 가능성을 연다. . . .

The stairwell as liminal space, in-between the designations of identity, becomes the process of symbolic interaction, the connective tissue that constructs the difference between upper and lower, black and white. The hither and thither of the stairwell, the temporal movement and passage that it allows, prevents identities at either end of it from settling into primordial polarities. This interstitial passage between fixed identifications opens up the possibility of a cultural

---

Black and White Critics from the 1920s and the 1960s)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예술 활동은 탈식민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르네는 1989년에는 휘트니 미국미술 박물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의 독립연구프로그램(Independent Study Program, 약어로는 ISP)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hybridity that entertains difference without an assumed or imposed hierarchy. . . . (Bhabha 5)

바바는 “사이의’ 공간”을 계단통의 비유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계단통의 이쪽과 저쪽”에, 즉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체성들은 계단통을 통해 상호 연결될 수 있는데, 개인은 각각의 정체성들을 연결하는 이 계단통을 통해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일시적 움직임”을 행할 수 있다. 개인은 이 “일시적 움직임”을 통해 각각의 구별되는 차이를 지닌 다양한 정체성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갖고 있던 기존의 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은 점차적으로 각각의 정체성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포함하는, 즉 혼종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혼종적 정체성은 양극단의 성격을 띠는 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들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 혼종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정체성들은 상호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혼종적인 정체성은 “사이의’ 공간”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되어 서인도제도의 문화와 북미사회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루시가 두 공간 모두를 거부하고 여성 탈식민주체 개인으로서 존재하겠다는 결심은 양쪽 문화를 모두를 이미 경험해 본 자로서 두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깨달음과 더불어 양 문화간의 차이를 품은 채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심을 미루어 볼 때 루시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정체성은 바바의 혼종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루시는 바바가 말하는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루시는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상흔에 무지한 북미사회를 비판하고 그곳에 귀속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서인도제도인의 정체성이 갖는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동시에 그녀는 여성 서인도제도인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서인도제도의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를 비판하고 그곳에 귀속되는 것 또한 거부한다. 그리하여 식민지 출신의 여성인 루시의 정체성은 서인도제도인의 정체성이 갖는 요소들과 북미사회

의 그것이 갖는 요소들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다시 말해 혼종적이라 할 수 있다. 루시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의 왜곡 둘 다에 저항하고 이 과정에서 토착문화와 북미사회의 문화를 일부 비판하고 일부 수용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애쓰는 혼종적인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서인도제도와 북미사회 모두를 거부하고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혼종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루시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은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가? 다음의 장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이끌게 된 삶을 위해 머라이어러를 떠날 무렵,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이 마치 빈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책처럼 내 앞에 펼쳐져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책을 한 권 주면서 내게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녀다운, 내가 사랑했었던 방법으로 그녀는 여성들과 일기, 그리고 물론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 .

나는 침대로 들어가서는, 오랫동안 불을 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워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머라이어러가 내게 주었던 책을 봤다. 그것은 내 침대 옆에 있는 침실용 탁자 위에 있었다. 책 옆에는 아름다운 파란색 잉크로 가득 찬 나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책과 만년필 둘 다 집어 들었고, 책을 펼쳤다. 페이지 맨 꼭대기에 나는 내 이름 전체를 썼다: 루시 조세핀 포터. 이름을 보자, 많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으나 나는 오직 이 말만을 적을 수 있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을 만큼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문장을 바라보자 거대한 부끄러움의 물결이 나를 덮쳤고 나는 울었는데, 너무나도 울어서 눈물들이 페이지 위로 떨어져 모든 글자들이 하나의 커다란 번진 자국이

되게 했다.

Around the time I was leaving her for the life I now led, I had said to her that my life stretched out ahead of me like a book of blank pages. As she gave me the book, she reminded me of that; and in the way so typical of her, the way that I had come to love, she spoke of women, journals, and, of course, history. . . .

When I got into bed, I lay there with the light on for a long time doing nothing. Then I saw the book Mariah had given me. It was on the night table next to my bed. Beside it lay my fountain pen full of beautiful blue ink. I picked up both, and I opened the book. At the top of the page I wrote my full name: Lucy Josephine Potter. At the sight of it, many thoughts rushed through me, but I could write down only this: “I wish I could love someone so much that I would die from it.” And then as I looked at this sentence a great wave of shame came over me and I wept and wept so much that the tears fell on the page and caused all the words to become one great big blur. (*Lucy* 163)

위의 인용문에서 두 여성인물들과 결별한 루시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이제 내가 이끌게 된 삶”을 막 시작한 상태이다. 루시가 머라이어와 헤어지기 직전에 머라이어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 교육의 마지막 내용은 “여성들과 일기, 그리고 물론 역사”, 즉 일기로 대변되는 여성의 글쓰기와 역사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교육과 함께 머라이어는 루시에게 빈 페이지들로 이루어진, “그녀가 오래 전에 이탈리아에서 샀던 공책”(a notebook she had bought in Italy a long time before; *Lucy* 162)을 준다. 머라이어의 마지막 교육은 루시에게 여성의 글쓰기를

격려하고 있으며 이에 루시는 그녀가 준 공책에 자신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글을 쓰는 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

루시가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그녀 고유의 목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는 행위가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루시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공책을 받았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은 그녀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이 글쓰기라는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작품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한계를 보였던 인물인 머라이어가 루시에게 여성의 글쓰기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책을 주기에 앞서 머라이어는 루시가 어머니와의 “사랑의 끝”(the end of a love affair; *Lucy* 131)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식민주의 및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에게 보부와의 『제2의 성』을 준 적이 있다. 이에 루시는 “나의 인생은 정말이지 이 두꺼운 책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My life could not really be explained by this thick book; *Lucy* 132)고 항변한다. 루시의 이러한 항변은 식민지 여성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북미사회의 여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루시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성 탈식민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데 한계를 보였던 머라이어가 그녀에게 공책을 주고서 여성의 글쓰기를 장려하는 것은 루시와 같은 식민지 출신 여성의 글쓰기가 북미사회의 여성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루시는 “아름다운 파란색 잉크로 가득 찬 나의 만년필”로 머라이어로부터 공책을 받은 공책의 “페이지 맨 꼭대기에 나는 내 이름 전체를 썼다: 루시 조세핀 포터”. “루시 조세핀 포터”라는 이름 중에서 “나의 조상들이 노예였을 때 그들을 소유했던 영국인”(the English man who owned my ancestors when they were slaves; *Lucy* 149)에게서 따온 성인 “포터”는 서인도제도의 노예사를,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삼촌인 조셉씨”(my

mother's uncle Mr. Joseph; *Lucy* 149)의 이름을 딴 중간이름인 “조세핀”은 “쿠바의 설탕으로 조셉 삼촌이 번 돈”(money he had made in sugar in Cuba; *Lucy* 149), 즉 제국주의의 농업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plantation)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루시의 이름은 서인도제도의 식민지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름 “루시”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겠다는 루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루시 조세핀 포터”는 여성 식민지인으로 살아왔던 과거와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한 현재, 즉 루시의 인생 전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루시는 자신의 이름 옆에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 죽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쓰고는 “거대한 부끄러움”을 느껴 온다. 그리고 “눈물들이 페이지 위로 떨어져 모든 글자들이 하나의 커다란 변진 자국이 되”어 그녀의 이름과 소망을 쓴 문장이 번져 사라지면서 작품은 끝난다. 작품의 결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시가 사랑에 관한 자신의 소망을 쓰면서 “거대한 부끄러움”과 슬픔의 감정을 왜 느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시는 어머니를 진심어린 단 하나의 사랑으로 여겼던 동시에 식민주의와 남성 중심의 토착문화의 대리인이었던 까닭에 그녀에게서 분노 또한 느꼈다. 이처럼 작품 전반에 걸쳐 어머니를 향한 루시의 “사랑과 증오는 나란히 존재한다”(love and hate exist side by side; *Lucy* 20). 그럼에도 루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없애지 못하는 데 이는 어머니를 서인도제도와 동격으로 보는 루시가 “나는 더운 곳에서 죽고 싶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더운 곳은 나의 집이었다. 난 집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난 아직 죽을 수 없었다”(I wanted to die in a hot place. The only hot place I knew was my home. I could not go home, and so I could not die yet; *Lucy* 141)면서 서인도제도를 향한 노스텔지어를 표현한 데서 드러난다.

그러나 루시는 고향을 향한 노스텔지어만큼이나 자신의 이름 안에

담긴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삶이 갖는 간극, 즉 “조세핀 포터”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서인도제도의 식민지사와 “루시”라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 또한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루시는 이 간극을 극복하고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사이의’ 공간”이라는 “이 세상에 홀로”(alone in the world; *Lucy* 161) 존재하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루시의 노스텔지어가 고향과 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절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겨났음을 명심한다면,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을 만큼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루시의 소망은 자신이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장하는 동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루시의 서글픈 수치심으로 읽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난 집에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난 아직 죽을 수 없었다”는 결심 또한 여성 탈식민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를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절연으로 인해 흘린 루시의 눈물이 서인도제도의 식민지사와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대한 결의를 동시에 의미하는 그녀의 이름을 변진 자국으로 만들어 지우는 『루시』의 마지막 장면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느끼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홀로 존재해야 한다는 비통함의 무게가 고향의 역사적 상흔과 현재 자신의 결의를 잇을 만큼 너무나도 무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루시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하고자 이 무게를 견디고 있다.



## 결론: 식민교육과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

본 논문은 『불안한 조건들』과 『루시』에서 재현된 식민교육과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1장에서는 각 주인공의 성장과정이 식민교육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불안한 조건들』의 탐부라는 인물의 성장과정을 통해 식민지인의 계층 상승에 대한 열망이 식민교육의 동화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로디지아로 돌아온 니아샤의 경우 식민지 본국에서의 교육 덕택에 그녀가 로디지아의 식민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아샤의 성장과정은 식민지 본국에서의 교육이 식민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가지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루시는 공식적인 식민교육과 제도권 밖에서의 식민교육 둘 다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루시의 과거 기억을 통해 식민지인에게 식민지 본국의 문학작품을 외우게 함으로써 그가 식민지 본국의 문화가 표방하는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도록 하는 식민교육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루시는 머라이어와의 관계를 이 기억에 병치시킴으로써 사제지간의 형태를 띠는 사적인 관계에서 다른 문화권의 문물들이 전달되는 가운데 이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강요받는 것 또한 식민교육의 본질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음을 역설하고 있다.

2장에서는 탐부와 니아샤, 그리고 루시가 식민교육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탐부는 부유한 로디지아 식자층 부모님을 둔 니아샤가 경험할 수 없었던 가난을 경험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계층 상승에 성공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 이 열망은 탐부가 식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며, 따라서 탐부는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포기했다는 점

에서 여성 탈식민주체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이게 된다. 니아샤는 식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이다. 식민지 내 식민교육이 남성 주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까닭에 식민교육은 식민주의, 남성 중심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이중의 억압을 자행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니아샤는 계층 상승의 열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탐부와 달리 식민교육을 비판적으로 보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웠다. 열심히 공부하여 품위 있는 직업을 갖되 항상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식민교육의 가르침에 니아샤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저항한다. 루시는 머라이어가 전수해주는 북미사회의 가치들이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삶을 결코 포괄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머라이어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제1세계 출신의 부유한 중산층 여성이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머라이어는 루시와 같은 식민지 출신의 하층민 여성의 삶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읽어내는 데 실패하며, 결국 루시는 머리아어를 떠나 자립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3장에서는 식민교육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탐부는 제외한 채 니아샤와 루시 각각의 여성인물이 재현하고 있는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인물 모두 적극적으로 식민교육에 저항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영국화되었다는 이유로 고향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니아샤는 자신이 영국과 로디지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으로 고통받는다. 그럼에도 니아샤는 식민교육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나 그녀의 저항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 홀로 저항해야 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게 된 니아샤는 신경성 거식증이라는 자학적인 행동을 하기에 이른다. 반면에 루시는 자신의 여성 탈식민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서인도제도와 북미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존재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리고 루시의 이러한 결심은 여성 탈식민주체의 글쓰기라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의 탄생을 보여준다. 식민교육에 의해 왜곡되어버린 식민지 출신의 여성의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성을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회복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루시의 성장과정은 여성 탈식민주체의 성장과정의 한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여성 식민지인들의 연대이다. 이 주제는 『루시』 보다는 『불안한 조건들』에서 더욱 다루어지고 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 저항하는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성인물들이 니아샤의 저항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논의함으로써 여성 식민지인들이 연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 식민지 본국 대 식민지라는 대항관계의 비평 경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인들 내부에 존재하는 충돌들과 모순들에 관한 논의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루시』와 관련하여 관심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영국문학의 경전이 여성 탈식민주체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것이다. 이미 논의하였듯이 루시는 식민교육에 대한 자신의 저항을 밀튼의 『실낙원』에 등장하는 루시퍼에 빗대어 서술한 바 있다. 루시의 이러한 서술은 식민지 본국의 문학과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사이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본 논문은 이 상관관계가 어떤 복잡다단한 양상들을 띠고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식민지 본국의 문학과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식민교육을 통해 식민지 본국의 문학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식민지 본국의 문학작품을 어떻게 수용 및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논의는 추후 더 많은 탈식민주의 여성 성장소설들을 연구한 후에 가능할 것이다.

## 인 용 문 헌

### 1차 문헌

- Dangarembga, Tsitsi. *Nervous Conditions*. Oxfordshire: Ayebia Clarke Publishing, 2004.
- Kincaid, Jamaica. *Lu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0.
- \_\_\_\_\_. *A Small Plac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88.
- Milton, John. *Paradise Lost*. London: Penguin Books, 1989.

### 2차 문헌

- 고수정, 김순양. 「미국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대처 프로그램 분석: Head Start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1.1 (2011): 359-83.
- Abel, Elizabeth, Marianne Hirsch, and Elizabeth Langland, eds. *The Voyage In: Fictions of Female Development*. Hanover: UP of New England, 1983. Print.
- Aegerter, Linsay Pentolfe. "A Dialectic of Autonomy and Community: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15.2 (1996): 231-40. Print.
- Ahmad, Hena. *Postcolonial Feminisms: Postcolonial Identities and Cosmopolitanism in the Works of Kamala Markandaya, Tsitsi Dangarembga, Ama Ata Aidoo, and Anita Desai*. New York: Peter Lang, 2010. Print.
- Andrade, Susan Z. *The Nation Writ Small: African Fictions and*

- Feminisms, 1958-1988*. Durham: Duke UP, 2011. Print.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04. Print.
- Boehmer, Elleke. "Tropes of Yearning and Dissent: the Troping of Desire in Yvonne Vera and Tsitsi Dangarembga." *The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38.1 (2003): 135–48. Print.
- Bolaki, Stella. *Unsettling the Bildungsroman: Reading Contemporary Ethnic American Women's Fiction*. Amsterdam: Rodopi, 2011. Print.
- Bonetti, Kay. "An Interview with Jamaica Kincaid." *The Missouri Review* 15.2 (1992): 123–42. Print.
- Brancato, Sabrina. *Mother and Motherland in Jamaica Kincaid*. Berlin: Peter Lang, 2005. Print.
- Brown–Rose, J. A. *Critical Nostalgia and Caribbean Migration*. New York: Peter Lang, 2009. Print.
- Caton, Louis F. "Romantic Struggles: the *Bildungsroman* and Mother–Daughter Bonding in Jamaica Kincaid." *MELUS* 21.3 (1996): 125–42. Print.
- Caute, David. *Frantz Fanon*. New York: Viking Press, 1970. Print.
- Chamberlain, J. Edward. *Come Back to Me My Language: Poetry and the West Indies*. Urbana: U of Illinois Press, 1993. Print.
- Chancy, Myriam J. A. *Searching for Safe Spaces: Afro–Caribbean Women Writers in Exile*. Philadelphia: Temple UP, 1997. Print.
- Cocalis, Susan L. "The Transformation of Bildung from an Image to an Ideal." *Monatshefte* 70.4 (1978): 399–414. Print.
- Counihan, Clare. "Reading the Figure of Woman in African Literature: Psychoanalysis, Difference, and Desire."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8.2 (2007): 161–80. Print.

- Davis, Horace B.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rint.
- Du Plessis, Rachel Blau. *Writing beyond the Ending: Narrative Strategies of Twentieth-Century Women Writers*. Bloomington: Indiana UP, 1985. Print.
- Eck, Lisa. "Thinking Globally, Teaching Locally: The 'Nervous Conditions' of Cross-Cultural Literacy." *College English* 70.6 (2008): 578–98. Print.
- Edmondson, Belinda. "Jamaica Kincaid and the Genealogy of Exile." *Small Axe* 3.5 (1999): 72–79. Print.
- Fanon, Frantz. *Toward the African Revolution: Political Essays*. Trans. Haakon Chevalier. New York: Grove Press, 1967. Print.
- Felski, Lita. *Beyond Feminist Aesthetics: Feminist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London: Hutchinson, 1989. Print.
- Ferguson, Moira. *Colonialism and Gender Relations: from Mary Wollstonecraft to Jamaica Kincaid*. New York: Columbia UP, 1993. Print.
- \_\_\_\_\_. *Jamaica Kincaid: Where the Land Meets the Body*. Charlottesville: UP of Virginia, 1994. Print.
- François, Irlene. "The Daffodil Gap: Jamaica Kincaid's *Lucy*." *Bloom's Modern Critical Views: Jamaica Kincaid, New Edition*. Ed. Harold Bloom. New York: Bloom's Literary Criticism, 2008. 79–96. Print.
- Goodman, Joyce, and Jane Martin, eds. *Gender, Colonialism, and Education: the Politics of Experience*. London: Frank Cass Publishes, 2002. Print.
- Gorle, Gilian. "Fighting the Good Fight: What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Says about Language and Power." The

- Yearbook of English Studies 27.1 (1997): 179–92. Print.
- Joseph, Betty. “Gendering Time in Globalization: The Belatedness of the Other Woman and Jamaica Kincaid’s *Lucy*.”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21.1 (2002): 67–83. Print.
- Kamada, Roy Osamu. *Postcolonial Romanticisms: Landscape and the Possibilities of Inheritance*. New York: Peter Lang, 2010. Print.
- Karafilis, Maria. “Crossing the Borders of Genre: Revisions of the *Bildungsroman* in Sandra Cisneros’s *The House of Mango Street* and Jamaica Kincaid’s *Annie John*.” *The Journal of M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31.2 (1998): 63–78. Print.
- Kelly, Gail P. and Philip G. Altbach. “Introduction: The Four Faces of Colonialism.” *Education and the Colonial Experience*. Ed. Gail P. Kelly and Philip G. Altbach. New Brunswick: Transaction, 1984. 1–5.
- Leseur, Geta. “One Mother, Two Daughters: the Afro–American and the Afro–Caribbean Female *Bildungsroman*.” *The Black Scholar* 17.2 (1986): 26–33. Print.
- \_\_\_\_\_. *Ten is the Age of Darkness: the Black Bildungsroman*. Columbia: U of Missouri Press, 1995. Print.
- Lima, Maria Helena. “Imaginary Homelands in Jamaica Kincaid’s Narrative of Development.” *Callaloo* 25.3 (2002): 857–67. Print.
- Lowe, Lisa. *Immigrant Acts*. Durham: Duke UP, 1996. Print.
- Mahlis, Kristen. “Gender and Exile: Jamaica Kincaid’s *Lucy*.” *Modern Fiction Studies* 44.1 (1998): 64–73. Print.
- Mbembé, J.–A., and Steven Rendall. “African Modes of Self–Writing.” *Public Culture* 14.1 (2002): 239–73. Print.
- MacDonald–Smythe, Antonia. *Making Homes in the West/Indies: Constructions of Subjectivity in the Writing of Michelle Cliff and Jamaica Kincaid*. New York: Routledge, 2001. Print.

- Moretti, Franco.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London: Verso, 1987. Print.
- Nair, Supriya. "Melancholic women: The intellectual hysteric(s) in *Nervous Condition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26.2 (1995): 130–41. Print.
- Nichols, Jennifer J. "'Poor Visitor': Mobility as/of Voice in Jamaica Kincaid's 'Lucy'." *MELUS* 34.4 (2009): 187–207. Print.
- Niesen de Abruna, Laura. "Jamaica Kincaid's Writing and the Maternal-Colonial Matrix." *Caribbean Women Writers: Fiction in English*. Ed. Mary Condé and Thorunn Lonsdale. London: Macmillan, 1999. 172–83. Print.
- Noyes, John K. "Goethe on Cosmopolitanism and Colonialism: Bildung and the Dialectic of Critical Mobility." *Eighteenth-Century Studies* 39.4 (2006): 443–62. Print.
- Oczkowicz, Edyta. "Jamaica Kincaid's Lucy: Cultural 'Translation' as a Case of Creative Exploration of the Past." *MELUS* 21.3 (1996): 143–57. Print.
- Okonkwo, Christopher N. "Space Matters: Form and Narrative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4.2 (2003): 53–74. Print.
- Patchay, Sheena. "Transgressing Boundaries: Marginality, Complicity and Subversion in *Nervous Conditions*." *English in Africa* 30.1 (2002): 145–55. Print.
- Paravisini-Gebert, Lizabeth. *Jamaica Kincaid: A Critical Companion*. Westport: Greenwood Press, 1999. Print.
- Sagar, Aparajita. "Anglophone Caribbean-American Literature." *New Immigrant Literatures in the United States: a Sourcebook to Our Multicultural Literary Heritage*. Ed. Alpana Sharma Knippling.



- Westport: Greenwood P, 1996. 171–86. Print.
- Schwartz, Meryl F. “An Interview with Michelle Cliff.” *Contemporary Literature* 34.4 (1993): 595–619. Print.
- Shaw, Carolyn Martin. ““You had a daughter, but I am becoming a woman”: Sexuality, Feminism and Postcoloniality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and *She No Longer Weep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8.4 (2007): 7–27. Print.
- Simmons, Diane. “Jamaica Kincaid and the Canon: in Dialogue with *Paradise Lost* and *Jane Eyre*.” *Melus* 23.2 (1998): 65–85. Print.
- Spivak, Gayatri Chakravotry. ““Can the Subaltern Speak?” Revised Edition, from the “History” Chapter of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Can the Subaltern Speak?* Ed. Rosalind C. Morris. New York: Columbia UP, 2010. 21–78. Print.
- Sugnet, Charles. “*Nervous Conditions*: Dangarembga’s Feminist Reinvention of Fanon.” *The Politics of (M)Othering: Womanhood, Identity, and Resistance in African Literature*. Ed. Obioma Nnaemeka. New York: Routledge, 1997. 33–49. Print.
- Summers, Carol. *Colonial Lessons: Africans’ Education in Southern Rhodesia, 1918–1940*. Portsmouth: Heinemann, 2002. Print.
- Thomas, Sue. “Killing the Hysteric in the Colonized’s House: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7.1 (1992): 26–36. Print.
- Tiffin, Helen. “Cold Hearts and (Foreign) Tongues: Recitation and the Reclamation of the Female Body in the Works of Erna Brodber and Jamaica Kincaid.” *Callaloo* 16.4 (1993): 909–21. Print.
- Uwakweh, Pauline Ada. “Debunking Patriarchy: The Liberational Quality of Voicing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26.1 (1995): 75–84. Print.

- Veit–Wild, Flora. *Teachers, Preachers, Non–Believers: a Social History of Zimbabwean Literature*. London: Hans Zell Publishes, 1992. Print.
- Viswanathan, Gauri. *Masks of Conquest: Literary Study and British Rule in India*. New York: Columbia UP, 1989. Print.
- Vorda, Allan. “An Interview with Jamaica Kincaid.” *Mississippi Review* 20.12 (1991): 7–26. Print.
- Wright, Derek. “Regurgitating Colonialism: The Feminist Voice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New Directions in African Fiction*. London: Twayne, 1997. 102–22. Print.

Abstract

Colonial Education  
in Postcolonial Female Bildungsroman:  
a Study of *Nervous Conditions* and *Lucy*

Eun-joo Le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a correlation between colonial education and the formation of postcolonial female subject represented in Tsitsi Dangarembga's *Nervous Conditions* and Jamaica Kincaid's *Lucy*. As various types of education that the protagonist receives matter to his development in traditional European Bildungsroman, so do in postcolonial female Bildungsroman whose intention is to rewrite the traditional European Bildungsroman in postcolonial context. Colonial education run in a colony doubly suppresses the protagonist of postcolonial female Bildungsroman with itself combined with the colony's patriarchal culture. The protagonist thus cannot but arduously endeavor to restore her distorted ethnic identity and femaleness by colonial education and then to grow up to be a postcolonial female subject.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various aspects of colonial education. Discussion on Tambu's development, the narrator of

*Nervous Conditions*, reveals struggles among colonial education, class mobility, and femaleness. The development of Nyasha, who has once been well educated in England, off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how and to what extent both education in a colonizing country and the one in a colony affect a teenaged female colonial. In *Lucy*, not only formal colonial education but the informal one as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between Lucy and her bourgeois employer Mariah are juxtaposed, and it should be discussed that what similarities between these two kinds of education are exposed by this juxtaposition.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analyzing each protagonist's reaction to colonial education. Tambu is the character with a strong aspiration to elevate her social class, and it should be discussed why this aspiration causes her failure to resist colonial education. Nyasha, the girl with ardent belief on female subjectivity, resists colonial education, and her resistance is in the form of nervosa anorexia, the extreme self–abuse. Her resistance invites us to discuss its meaning. Another juxtaposition, the one of Lucy's childhood memories related to her mother and her description of Mariah, is narrated in *Lucy*, and this juxtaposition is essential to discuss why postcolonial femaleness is the foremost factor of resisting colonial education.

The third chapter elaborates on evaluating Nyasha and Lucy's formations as a postcolonial female subject. Tambu is excluded from this discussion because her formation is proved to be assimilated by colonial education. It is Nyasha's ambiguous ethnic identity, neither English nor Rhodesian, that does negatively act on her resistance to colonial education, and this needs to be discussed in detail. Lucy denies both the West Indies, her mother land, and North America, her new country, which only distort her ethnic identity and

femaleness and determines to exist alone between them. Lucy's determination requires a detailed discussion because it sheds light on why her formation as a postcolonial female subject can be better appreciated than Nyasha's.

**Keywords:** Tsitsi Dangarembga, Jamaica Kincaid, *Nervous Conditions*, *Lucy*, postcolonial female Bildungsroman, colonial education, postcolonial female subject

**Student Number:** 2011–20030